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danaparknewstar.com
Dian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MIT 문진영씨 태양에너지 효율 30%높인 칩 개발

‘획기적 발명’ 찬사, 태양광 에너지계 대박 조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태양광 효율 1~2%만 증대시켜도 업계에선 큰 발전으로 평가하는데 MIT 문진영 씨가 효율을 최대 30%까지 향상시킨 칩 솔루션을 개발해 화제다.

진영 씨와 그의 팀 Unified Solar는 태양광 패널의 효율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칩 솔루션을 제안, MIT 주최 ‘클린 에너지 프라이즈’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미국 에너지부(DOE)와 전력회사 NSTAR로부터 22만 5000달러를 받았다.

클린 에너지 프라이즈는 바람, 파도, 태양 등 에너지 개발 아이디어뿐 아니라, 발전 가능성과 사업화, 시장화 가능성까지 높은 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문씨는 “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1~2%만 증가해도 큰 발전이

▶▶2면으로 계속



클린 에너지 프라이즈 시상식에서 문진영씨(가운데), MIT 동료 연구원들, NSTAR 대표이사 크레이그 홀스트롬(오른쪽)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미 전역 호평속 보스톤 상영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지난달 27일 보스톤에서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호평을 받으며 상영되고 있다.

설국열차는 기온 이변으로 모든 것이 얼어붙어버린 지구에 생존자들을 태우고 끝없이 달리는 기차 안에서 춥고, 배고프고, 병든 꼬리칸 탑승객들이 술과 마약을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앞쪽칸 탑승객들과 생존을 위해 싸우며 기차를 장악해가는 스토리다.

미국 개봉 첫 주 8개 상영관에서 시작해 일주일만에 상영관이 250개가 늘어날 정도로 전미에서 흥행 중이다.

보스톤글로브, 뉴욕타임즈, LA타임스, USA투데이 등 주요 언론은 물론, 많은 영화, 연예 관련 웹사이트들이 설국열차를 비중있게 다루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스토리텔링에 감각있는 영상미를 더해 영화의 의미 전달은 물론 예술적으로도 훌륭하다.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2014년 할인항공전문

From **\$1165.47~**

9월 비수기 보스톤출발 왕복 항공권

8월 1일부터! IACE가 보스톤 손님들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합니다!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티켓가격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패키지 투어, 고국투어, 크루즈, 호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문의 바랍니다.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카톡상담아이디: IACEKOREA

MORTGAGE MASTER

#1 Lender in Massachusetts!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4251/MA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워크를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Exclusive Listing: 뉴튼 맨달

- \$2,650/ 3 beds/ 2 baths
- 그라지 파킹 포함
- 뉴튼 초, 고등학교와 인접한 거리에 있음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미 에너지 사용 패러다임 바꿀 수 있어

▶▶1면에 이어서

라고 한다. 그런데 칩 솔루션이 적용 되면 최대30%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 된다. 제품차별화로 인해 1% 마진만 더 생겨도 큰 이득인 태양광패널 시장 이기에 이 칩 솔루션을 받기는 곳이 많

“패널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이들이 태양 에너지에 매력을 느끼고 이용하게 될것” 이라고 클린 에너지 프라이즈 시상식에서 연설했다. 칩 솔루션은 이미 특허를 받았고, 문

양광 패널의 가장 큰 적은 패널 내의 불균일한 그림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해 불균일한 그림자의 영향 아래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생성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패널은 60~70개의 ‘셀’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 한 셀이라도 나뉘어 있거나 그늘이 지게 되면 패널 전체의 효율이 저하된다. 다른 셀이 완벽하게 햇빛을 받고 있어도 가장 능률이 낮은 셀이 전체 패널의 효율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문진영 씨가 개발한 칩 솔루션은 모든 셀의 전류 균형을 강제시키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대전력 추종제어(MPPT)가 셀 레벨에서 이루어지며, 패널 내에 특정 부위 셀 효율이 떨어져도 다른 셀의 효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팀에서 칩 설계를 담당한 문진영 씨는 애초에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부터 ‘주책가’ 를 염두에 뒀다. 원래 하루종일 꾸준히 그늘이 지는 곳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소가 허허 벌판이나 사막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려면 전문가가 그 장소에 그림자가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 등을 조사하며 견적을 내야 한다. 패널 가격을 제외한 설치 견적 비용만도 몇 백불이 훌쩍 넘기 때문에 일반 가정

서 태양광 에너지 도입은 예상일이 아니었다. 문씨는 이 칩 솔루션을 탑재한 패널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그늘이 하루종일 생기는 지붕이라도 설치를 위한 주변 환경 분석에 신경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보스톤만 해도 현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곳이 많이 없어요. 복잡한 시가지에서는 주변이 확 트여있지 않아서 하루종일 여기 저기 그늘이 지거든요. 칩 솔루션이 적용되면, 쉽게 말해서 그들의 정도나 패턴에 관계 없이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벽에 전깃줄을 꼽기만 하면 전기사용료

가 낮아지는 거예요.” 칩 솔루션이 적용된 태양광 패널은 부분적인 그늘에 의한 효율성 저하가 거의 완벽하게 사라진다. 이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최대 30%까지 증가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크게 늘어난다. 패널을 구입해 전기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발전소, 회사, 공장 등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 태양광 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epark@bostonkorea.com



태양광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칩을 개발해 22만 5천불의 상금을 수여 받은 문진영 씨

다” 고 말했다. 세계적인 태양광 패널 제조회사 5곳에서 공정라인을 수정할 의향까지 내비치며 문 씨의 칩 솔루션에 긍정적으로 호응했다는 것이다.

NSTAR 대표이사 크레이그 홀스트롬(Craig Hallstrom)은 Unified Solar의 칩 솔루션이 “태양광 에너지 업계의 판을 뒤집는 획기적 발명” 이라며

진영 씨는 이 솔루션을 실제화시켜 칩으로 만들기 위해 칩 설계에 한창이다.

“수차례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이 시장화되면 실생활에 매우 효율적으로 적용될 것” 이라고 문 씨는 기대한다.

이 솔루션은 태양광 에너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태

설국 열차 보스톤 절찬리에 상영중

▶▶1면에 이어서

롭게 만들어졌다는 평이다. 보스톤 글로브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스토리, 사운드, 시각미, 기술, 감정 등을 적절히 결합해 스텝 넘치고 풍요로운 영화를 만들었다” 고 평가하며 자세한 영화 리뷰를 실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 잡지인 할리우드 리포터는 설국열차의 지적 수준과 독창성, 예술성을 높이 사면서 스텝까지 넘친다며 극찬했고, 연예 잡지 롤링스톤에서는 설국열차 개봉 시기에 이 영화가 “

글로벌 관객들을 만족시킬 것”이라며 이미 흥행을 예상했다.

현재 보스톤 상영관은 섬머빌의 Somerville Theater, 프레밍햄의 AMC Framingham 16, 브루클라인의 Coolidge Corner Theatre, 덴버의 Hollywood Hits Theatre, 글러스터 시의 Cape Ann Community Cinema 등이다. 로드아일랜드에 위치한 Cable Care Cinema 에서도 설국열차를 상영하고 있다.

epark@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이론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인회 8·15 기념 체육대회 개최 ‘참가 범위 넓혀 모두의 축제되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애바다 기자 = 뉴잉글랜드 한인회는 광복절을 기념해 예년 행사인 뉴잉글랜드 한인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한선우 한인회장은 “기존에 큰 참여율을 보였던 종교단체는 물론 참가 범위를 넓혀 동문회, 학생들, 스포츠 동호회 등 단체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고 말하며 체육대회가 특정 그룹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한인의 잔치가 되길 바랐다.

한인회는 더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이번 체육대회에 기존 종목 이외 이어달리기(계주)를 추가했다. 일반 400미터를 포함해 50~60대 어른들을 위한 200미터 실버계주, 남녀가 함께 뛰는 혼성 계주로 구성했다.

체육대회를 총괄적으로 맡아 준비하고 있는 장수인 부회장은 “경기를 관람만 하며 무료해 하실 어른들을 위해 게임도 준비하고, 요가나 손마사지, 네일 아트 등도 추진 중이다” 라고 전했다.

덧붙여 “건강하고 스포츠를 잘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피크닉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 며 체육대회가 한인 전체의 행사가 되길 바랐다. 장 부회장은 사용하지 않는 매니큐어를



지난해 체육대회에서는 케임브리지 한인교회가 배구와 계주에서 1위, 소프트볼과 족구에서 2위를 차지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기증받고 있다.

체육대회는 8월 16일 오전부터 워터타운에 위치한 아스널 공원(Arsenal Park)에서 열리며 경기종목은 소프트볼, 농구, 배구, 족구로 남녀제한없이 팀구성을 할 수 있다.

이 날 체육대회에는 순서 중간에 간단한 광복절 기념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체육대회 참여 희망자는 8월 10일까지 한인회 사무실로 전화, 우편, 이메일로 신청가능하며 참가비는 체크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학생단체는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일시: 8월 16일 오전 9시
장소: 아스널 공원, 485 Arsenal St. Watertown, MA 02472

종목별 \$100, 4 종목 모두 참가시 \$350, 계주는 참가비 없음.

참가신청 및 문의: 781-933-8822, haninhoebo@gmail.com

epark@bostonkorea.com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건립 모금 골프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는 오는 9월 1일 로드아일랜드 한인회관 건립 모금을 위한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개인당 100불의 참가비가 있고, 골프코스 및 카트 사용료, 간식, 저녁 식사비, 상품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홀스폰서가 1구좌당 100불에 가능하며, 각 홀에 스폰서 소속과 이름을 게재해 준다.

주최 측은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골프도 즐기고 친목을 다지며 한인회관 건축 모금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이종민 (401-874-2862; uricml@uri.edu), 이동수 (401-556-4224; dslee226@yahoo.com), 조봉섭 (401-632-7401; bcho@uri.edu)

회원에게 연락하면 된다.

일시: 9월 1일
오전 11:30 - 낮 12시 접수,
낮 12:30분부터 Shot Gun 예정

장소: Cranston Country Club, 69 Burlingame Rd., Cranston, RI 02921

전화번호: 401-826-1683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박애바다 Ephatha Park

Graphic Designer
정현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현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악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SAT Plus Summer Schedul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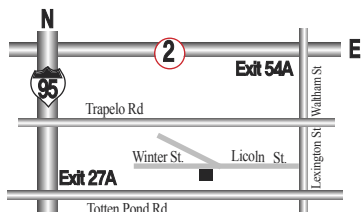
June 7/7 - 7/25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August 8/4 - 8/22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시민협회 인턴, 를랜드 청 캠프에서 맹활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뉴잉글랜드 한미 시민협회에 속한 한인 고등학생 인턴들이 매사추세츠 부지사로 출마하는 를랜드 청 (Leland Cheung) 캠프를 도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민협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Ji Won Choi (11학년), Beatrice Choo (12

화, 데이터베이스 리서치, 언론 보도 자료 정리는 물론 를랜드 청 후보자가 참여하는 이벤트에도 함께 참가하고 관리하는 일까지 담당한다.

이경해 시민협회장은 “인턴들이 스스로 먼저 연락하고, 기사도 내보내 자고 제안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한다. 커뮤니티를 위하

홍보하려니 처음엔 긴장됐지만 내가 도움이 되는 일이 많아서 기쁘다. 를랜드 청 후보를 홍보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겪어보는데 값진 사회경험인 것 같다” 고 소감을 말했다.

학생들은 9월 9일에 있을 예비선거를 대비해 를랜드 청 후보를 매사추세츠 주 전역에 홍보하고 더 많은 지지자를 모으는데 힘쓰고 있다.

시민협회에서는 “청 후보가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매사추세츠 주 부지사가 되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고 전했다.

이 고등학생들 이외에도 한 한인 대학생이 매사추세츠 주지사 사무실에서, 두 명의 한인 학생은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의 사무실에서 시민협회를 통해 연결되어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이경해 회장은 “다른 학생들도 시민협회에서 제공하는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기회를 누렸으면 좋겠다” 라고 바람을 전했다.

시민협회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문의: www.kacl-ne.org

epark@bostonkorea.com



왼쪽부터 Ji Won Choi, Michael Yeung, Leland Cheung, Tim Jaung, and Beatrice Choo

학년), Timmy Jaung (대학 1학년), Byung Joon Lee (11학년), Michael Yeung (11학년) 인턴학생들은 전화통

는 노력과 마음가짐이 고맙다” 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시민협회 인턴인 최지원 학생은 “고등학생으로서 정치 후보자를 도와

를랜드 청, 아시아계 최초 MA 부지사 입후보 선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현 캄브리지 시의원 겸 부지사 후보인 를랜드 청이 9월 9일에 있을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선출됐다. 공식적인 입후보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정당대회에서 적어도 15%의 지지율을 받아야 하기에 입후보자 선정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를랜드 청 후보는 이번 2014년 매사추세츠 주 전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소수 민족 후보다. 또한 아시아계 미국인으로서 최초로 주 전체 선거에 출마하게 된다. 9월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당선되는 부지사 후보는 주지사 선거(gubernatorial election)에서 당선되는 주지사 후보와 함께 11월 총선거에서 공화당 측 입후보자와 맞서게 된다.

청 후보는 2009년 캄브리지 시의원 당선 이후 현재까지 지역 산업들과 지역 사회, 주민들간의 열린 대화를 활성화하고 이민자,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들의 권리 증진에 힘써왔다. 최근에는 매사추세츠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 정부의 개혁과 부지사 역할의 재정립 등 여러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매사추세츠 주에 주민 모두의 성공을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는 청 후보는 “부지사로 당선될 경우 유치원 교육부터 직업 준비 프로그램까지 교육 수준 확장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매사추세츠 주의 경제를 이끄는 기업들과 소규모 자영업들의 확장-구축을 통해 주 전역에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 이라고 뜻을 밝혔다.

현재 를랜드 청 후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전통적으로 아시아계 후보가 드문 보스톤 정치계에서 정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는 매사추세츠 주 정계에서 아시아계 후보도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고 표명했었다.

를랜드 청 후보의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Leland-Cheung.com) 혹은 SNS (twitter.com/lelandcheung, facebook.com/ElectLelan)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청 후보의 정책 제안들은 링크(http://www.LelandCheung.com/reboot_lg_role)를 참고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영화 속 캠핑카, 우리도 즐길 수 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예바다 기자 = 바야흐로 캠핑의 계절. 텐트로 즐기는 캠핑도 좋지만 'Recreational Van(캠핑카)'를 이용한 캠핑은 색다른 재미와 안락함을 선사할 것이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나 즐기는 그림의 떡이라는 인식과 달리 크게

매사추세츠 주 트루노 시에 위치한 케이프 코드 캠프그라운드에서는 화장실, 에어컨, 히터, 주방용품이 구비되어 있는 캠핑카와 하수구, 물, 전기 이용이 가능한 캠핑장소를 제공한다. 한가로운 시

여유롭고 느긋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전거, 등산, 고래관람, 낚시, 보트타기 등의 흥미진진한 이벤트도 즐길 수 있고, 여행객들을 위해 세팅된 주변의 타운들을 도보로 구경할 수도 있다.

비(Premium RV Rental)는 하룻밤에 159불이고 퀸 사이즈 침대, 소파 침대, 그리고 이단 침대가 구비되어 있다. 스탠다드 캠핑카 렌트비

(Standard RV Rental)는 하룻밤에 99불이며 4인 가족이 편히 잘 수 있는 이층 침대, 퀸 사이즈 침대, 잭 나이프 소파 베드가 갖춰져 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캠핑카를 이용할 수 있다.

골 풍경, 잔잔한 해변, 고요한 자연환경 속에서

수건, 슬리핑백, 이불, 베개, 접이식 의자 등은 개인이 지참해야 하며 캠핑카에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숯불석쇠판과 그릴, 피크닉 테이블, 접시, 냄비, 후라이팬, 커피 메이커, 텔레비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이 렌트비에는 성인 2명 가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낮 시간 방문자와 2세 이하 유아는 무료이고, 밤 10시 이후에도 머무는 17살 이하 청소년은 6불, 18세 이상 성인은 12불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하루 주차비는 10불이다.



를 방문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웹사이트: www.abcamping.com

성수기(5월 23일~9월 8일)에는 딜럭스 캠핑카 렌트비(Deluxe RV Rental)가 하룻밤에 169불이다. 4인 가족이 편히 잘 수 있는 두 개의 퀸 사이즈 침대와 큰 소파가 있다. 6인 가족을 위한 프리미엄 캠핑카 렌트

비수기(3월 28일~5월 22일, 9월 9일

epark@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재미한국학교가 주최한 제32회 한국학교교육학술대회에 참가한 뉴잉글랜드 교사들

재미한국학교 학술대회서 뉴잉글랜드 교사 기량 확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지역 한국학교 교사 18명이 재미한국학교 협의회(NAKS)가 주최한 교사 연수회와 제32회 한국학교교육학술대회에 참가해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

집중 연수 과정 및 교사연수회에서는 한국어 교육 관련 강의는 물론, 브리검 영 대학교 마크 피터슨 교수의 시조 특강, 경희 여자중학교 강용철 교사의 한국어 수업 지도에 대한 특강이 이뤄졌다. 장기근속 교사 및 우수교사들을 격려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뉴잉글랜드 지역 한글학교 중에는 문혜원(로드아일랜드 한국학교) 교사가 25주년 근속 교사상을 받았고,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의 남일교장이 20년 근속 교사상을 수상했다. 로드아일랜드 한국학교 (교장 김희몽)는 개교 35주년 기념해 표창받았고, 북부 보스턴 한국학교 장인숙 교장이 대한민국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국립국어원 원장 표창장은 윤미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뉴잉글랜드 전 회장에게 돌아갔다.

이번 학술대회는 '봉사'와 '전문성'이라는 주제로 교육부, 국립국어원,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재외동포재단, 주미대한민국대사관, 김구재단, 종이문화재단 후원으로 이뤄졌다.

학술대회는 강용진 총회장과 장동구 재미한국학교 이사회장의 환영사로 개막되었고, 대한민국 40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경제 성장 연구소 이사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다른 순서로 진행된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는 보스턴 장로교회 한국학교의 황성빈 학생이 뉴잉글랜드 지역을 대표로 나가 '나의 밥 이야기'라는 주제로 발표해 2등으로 입상했다.

대회 기간 중에는 협회 총회도 이루

어저 제17대 회장으로 최미영 북가주 협의회 선출이사가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재미한국학교는 북미 46개 주의 14개 지역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1982년 제1회 대회를 워싱턴DC에서 가진 이후 이번이 32회째다. 내년에는 뉴욕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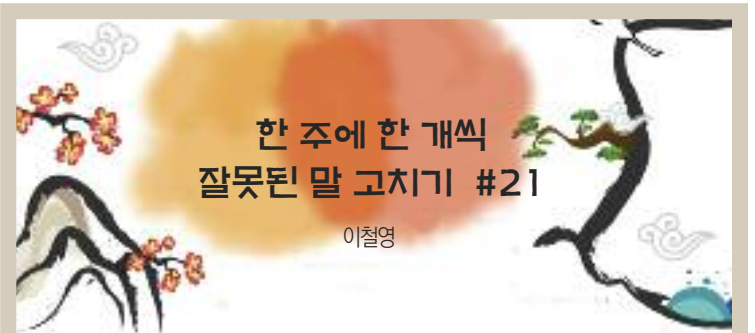
가입 및 행사에 문의는 한순용 회장 (president@naks-ne.org), 김현정 총무 (anasta24@empas.com) 또는 홈페이지 (www.naks-ne.org)를 통해 하면 된다.

후원 문의: 박지애 재무 (jiae@live.com)

주소: 38 Deerhaven Rd, Nashua, NH 03064

Payable to: NAKS-NE

bostonkorean@hotmail.com



한 주에 한 개씩 잘못된 말 고치기 #21

이철영

입소문 (X) -> 소문 (O)

누군가가 지어내고,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이 따라 쓰기 시작한 정체를 불명의 말인데, 문제는 이게 사전에 버젓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옵니다. 그럼 "입소문"이란 입에 오르내려 전해지는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 뭔가 이상하죠? 근본 없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소문'이란 입으로 퍼지는 거죠. 사전에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전하여 들리는 말"이라고 풀이가

여러번 얘기했던 "역전앞" 같은 말이죠? 그냥 '소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보스톤 한미 노인회 효도잔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노인회에서는 오는 26일 뉴잉글랜드 모든 노인들을 위한 효도잔치를 연다. 특별순서로 이승복 박사가 초청되어 간증한다. 이승복 박사는 어릴 적 사고로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를 얻었으나 신앙의 힘으로 삶을 극복해 하버드 의대 인턴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재활의학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성요한교회에서 오전 11시, 북부 보스톤 교회에서 오전 11:30분에 버스가 출발하며, 성요한 교회로 오후 3시까지 돌아온다.



사랑방 모임은 8월에는 진행되지 않으며 9월 3일에 재개한다.

일시: 7월26일 토요일
오후 12~2시

장소: 10 brace ave,
hooksett N.H 03106

bostonkorean@hotmail.com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앤티비, '티보 플레이' 런칭 기념 할인 실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북미주 유일하게 합법적인 한국 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는 IPTV 업체 앤티비가 '티보 플레이' 로 개명해 런칭하면서 고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런칭 기념 이벤트는 8월 31일까지며, 가입자들은 기존 \$39.99의 상품을 개통일로부터 3개월간 월 \$9.99로 이용가능하고, 그 후에는 매월 \$34.99가 과금된다.

티보 플레이로 새롭게 런칭한 앤티비는 한국 지상파 방송 3사, KBS, MBC, SBS 그리고 CJ E&M 이 보유한 케이블 방송 및 배급영화 등 주요 한국 방송 프로그램과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당일 시청 가능하며, 편성표 시간에 구매 받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골라볼 수 있다. 게다가 고화질, 저렴한 가격, 그리고 까다로운 설치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간단하게 연결하여 바로 시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티보 플레이를 관리하는 &TV Communications Inc.는 티보 플레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더 나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보 플레이 관련 문의는 보스톤 코리아 TV 사업국(617-955-9459)으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Welcome, TBO

앤티비(ANTV) & TV 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FESTIVAL!

티보 플레이(TBO Play) 런칭 이벤트

이벤트 시청 기간 : 7월 14일 ~ 8월 31일(개통일 기준)
이벤트 내용 :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로 가격인하 (3개월 후 \$39.99로 과금)

KBS, MBC, SBS, CJ E&M, TBS, FOX, HBO, ESPN, etc.

한 여름 밤의 낭만, 이동호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오르간 콩쿠르인 National Young Artist Competition in Organ Performance에서 2010년 관객 선정 인기상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해 주목받은 오르가니스트 이동호 씨가 8월 20일 메튜엔 메모리얼 뮤직홀 (Methuen Memorial Music Hall)에서 독주회를 가진다.

연주될 곡은 스탠포드(C. V. Stanford)의 6개의 짧은 전주와 후주, 프랑크(C. Franck)의 그랜드 오르간을 위한 6곡, 라인버거(J. Rheinberger)의 소나타 E 단조, 뒤프레(M. Dupré)의 코르테쥬와 리타니, 벅(D. Buck)의 '스위니 강' 변주곡, 그리고 에벤(P. Eben)의 '일요일 음악' 으로, 대부분 19세기부터 20세기의 후기 낭만과 곡들이다.

'위대한 오르간 (The Great Organ)' 이라 불리는 메튜엔 뮤직홀의 오르간은 1600 여 개의 파이프와 4개의 건반으로 구성되어 1863년 제작된 대형 오르간이다. 해마다 미국 전역과 유럽에서 많은 오르간 연주자들이 이곳을 찾아 연주하는데, 이동호 씨가 선보일 프로그램은 이 그랜드 오르간의 장엄하고 다양한 음색을 보여줄 수 있는 곡들로 이뤄져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동호 오르가니스트는 지금까지 워싱턴 국립 성당, 듀크 대학 채플, 애틀랜타의 성필립 성당 등 미국, 유럽, 한국의 유명 교회에서 많은 연주회를



METHUEN MEMORIAL MUSIC HALL DONGHO LEE

Durham, North Carolina

Wednesday, August 20, 2014, 8:00 P.M.

Sponsored by Carl, Sarah, Martha Evelyn and Christopher Klein

Tickets available at the doors (open at 7:30 P.M.). Adults: \$12, Children: \$5

Works by Stanford, Franck, Rheinberger, Dupré, Buck and Eben

Dongho Lee, a native of Seoul, South Korea, was awarded both the First Prize and the Audience Prize in the 2010 American Guild of Organists National Young Artists Competition in Organ Performance. He has both degrees from Yonsei University (Seoul) and Yale University. He is currently a doctoral candidate at Indiana University Jacobs School of Music where he is a member of Christopher Young. At Indiana University, he was a recipient of the Regional Academic Fellowship and has also served as Associate Professor of Organ. His other teachers include Tong-Soo Kwak and Marie-Josée. Mr. Lee has played recital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South Korea. Significant recital venues in which he has performed include the National Cathedral, Duke University Chapel, the Cathedral of St. Philip (Raleigh), Christ Church Cathedral (Methuen), the Chapel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cademy, and the Cathedral of the Madeleine (Salt Lake City). His first commercial recording was released in early summer 2011 on the Pro Organ label and features the new C. F. P. Organ at Indiana University. Mr. Lee is currently Associate Director of Music at Christ Church, Episcopal in Charlotte, North Carolina, where the series is presented regularly. www.dongho-lee.org/usa

192 Broadway (Route 28), Methuen

www.mmmh.org

열었다. 현재는 인디애나 음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위치한 크라이스트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 및 음악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연주회 입장권은 성인 12불, 어린이 5불이며 연주회 당일 메튜엔 뮤직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일시: 8월 20일 수요일 오후 8시
장소: Methuen Memorial Music Hall, 192 Broadway, Methuen, MA 01844

참고: www.mmmh.org
문의 전화: 978-685-0693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상담문의: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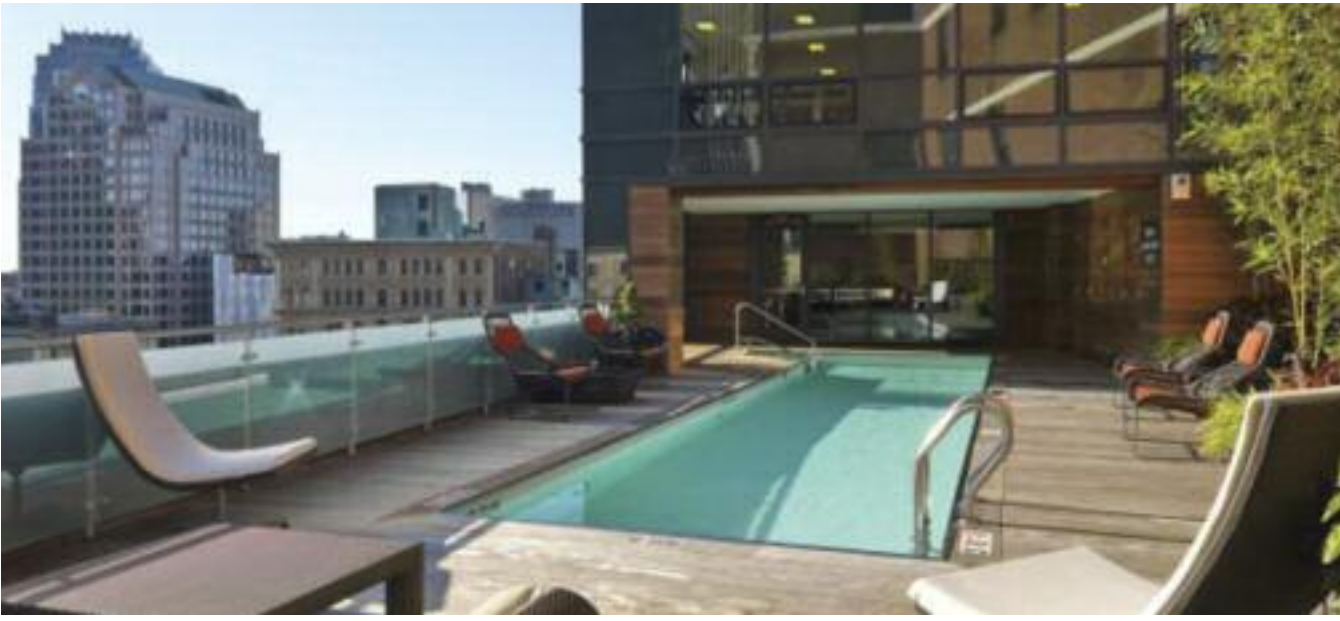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보스톤 다운타운의 고급 콘도의 모습. 이들 콘도는 백만불을 호가하며 수백만불에 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웃돈을 주고 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매사츄세츠 콘도 인기 사상 최고

콘도와 단독주택 가격차 단 2만불로 좁혀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콘도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매사츄세츠 상당수의 주택구입자들이 커다란 백야드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단독주택을 포기하고 비교적 관리가 편하고 도심에 가까운 콘도를 선택하고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밝혔다.

보스톤글로브가 22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주내 콘도가격은 평균 32만불로 34만불인 단독주택에 비해 단 2만불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택 시장이 최정점이었던 8년전의 상황과 유사하다.

찰스게이트 부동산그룹의 마이클 디멜라는 “콘도의 인기는 사상최고” 라고 밝혔다. “과거에 콘도는 찬밥이었지만 지금은 편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선호가 높다” 라고 밝혔다.

콘도 가격은 올해 5개월간 무려 13%가 상승해 6% 상승한 단독주택에 비해 두배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 주

전역의 단독주택 판매는 4% 하락한 반면 콘도의 판매는 9%나 상승했다.

보스톤 다운타운의 콘도시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사분기 평균 가격은 스쿼어풋당 \$728로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가 상승한 수치다. 경비서비스를 포함한 고급 콘도의 경우 평균 가격은 15% 오른 스쿼어풋당 \$1,188을 기록할 정도였다.

“보스톤의 콘도 가격은 매사츄세츠 평균을 훨씬 넘는 상태다. 지난해 평균 콘도 가격은 \$851,199로 지난해 같은 3달 기간동안 무려 17%나 오른 가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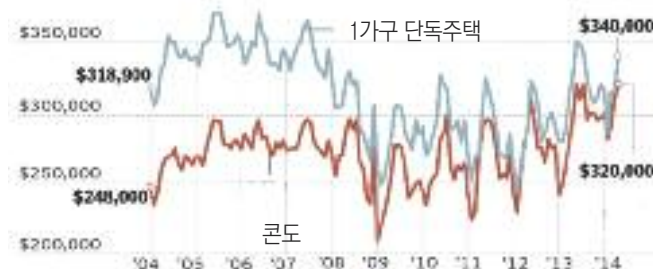
보스톤의 콘도 가격은 매사츄세츠 평균을

훨씬 넘는 상태다. 지난해 평균 콘도 가격은 \$851,199로 지난해 같은 3달 기간동안 무려 17%나 오른 가격이다. 그럼에도 절반 이상은 요청가격에 웃돈을 주고 팔린다.

지금까지 콘도는 젊은부부나 큰 집을 판 노부부의 주거공간으로 여겼으나 최근 들어서는 학군 좋은 곳의 경우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도 입주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처럼 콘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콘도 시장의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콘도를 구입하는 주 고객들은 50대 이후의 베이비 부머와 젊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이다. 특히 노년층들은 과거 보스톤을 혼잡한 곳으로만 여겼지만 지금은 오히려 즐겁고 혁신

매사츄세츠 평균 주택 가격



아마존, 월 \$9.99에 전자책 무제한 구독 서비스 실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박예바다 기자 = 아마존은 지난 18일 전자책(e-book)을 원하는 만큼 읽을 수 있는 무제한 구독 서비스 ‘Kindle Unlimited’ 를 실시했다. 이 새로운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월 9.99달러로 60만권이 넘는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구독할 수 있다.

기존의 킨들 서비스 사용자들은 킨들 렌딩 라이브러리(Kindle Lending Library)에서 전자책을 빌리려면 반드시 킨들 기기를 사용해야 했고 한 번에 한 권의 책만 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Kindle Unlimited 가입자들은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 블랙베리 등 스마트폰은 물론 아이패드와 각종 태블릿, PC, Mac 등에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책을 읽을 수 있다.

어떤 전자기기든지 ‘Kindle Reading Application’ 이라는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킨들 전자책을 즐길 수 있고 한번에 10권까지 대여 및 소장 가능하다. 전자책 중에는 인기소설인 반지의 제왕과 헝거 게임 등도 포함되어 있다.

킨들 언리미티드는 전자책과 더불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Kindle Unlimited with Narration)도 제공한다. 서비스 가입자들은 2000여권의 오디오북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으며 가입 후 첫 3개월은 15만권이 넘는 오디오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park@bostonkorea.com

적이며 생생한 삶을 사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일부 고급콘도는 수영장, 테니스 코트, 운동시설, 파티 등을 열 수 있는 공간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각종 기기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비해 훨씬 편리하다.

hsb@bostonkorea.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현재 철거 중인 토빈브리지 톨 부스를 우측으로 두고 좌측에 2개 차선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차들이 달리고 있다

“통행료 때문에 이제 멈추지 마세요”

토빈브리지 톨부스 고속통행으로 변경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토빈브리지 톨 시스템이 21일부터 새롭게 바뀌어 운전자들은 톨 비용을 내기 위해 멈출 필요없이 그대로 운행하면 된다.

다리 상단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지패스(E-ZPass) 소유 차량을 인식해 \$2.50을 부과하며,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에게는 추후 우편으로 \$3.50을 부과한다.

MA주 교통부는 오는 2016년부터 매스 파이크(90번 도로)에 있는 모든 톨부스를 전면 고속 주행 톨부스로 전환하기에 앞서 토빈브리지에서 시범적으로 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까지 토빈브리지에 있던 기존의 톨 부스는 약 절반이 철거되

었으며 앞으로 계속 나머지 부스를 철거해 교통 통행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패스 판독기와 통행차량 판독 카메라는 토빈브리지 보스톤 쪽 끝에 부착되어 있다.

왼쪽 차선으로 절반 정도 톨부스 없이 통행하는 것만으로도 별차량 흐름은 훨씬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 아침 토빈 브리지를 통해 출근했던 한 주민은 트위터를 통해 “놀랍다. 정체없이 차량통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톨부스 없는 토빈브리지 통행은 출근시 정체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매사추세츠 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많은 운전자들이 이지패스를 이용해주길 권하고 있다. 교통부는

현재 이지패스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 외 운전자들을 추적해 요금을 거두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부에 따르면 이지패스 레인을 이지패스 없이 통과한 운전자들의 통행료와 벌금이 \$5.52 million에달한다.

현재 가장 많은 이지패스 위반 주 외 운전자들은 커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뉴욕 그리고 플로리다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는 뉴햄프셔, 메인과 협력하여 운전면허 갱신 시 밀린 통행료가 있을 경우 갱신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 뉴잉글랜드 소속 주들도 매사추세츠와 이러한 상호협력 협약을 맺을 것을 고려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로건공항 입국수속 빨라진다

미국 및 캐나다 시민권자 자동입국심사 가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및 캐나다 시민권자는 로건 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긴 대기줄에서 기다리지 않고 자동 입국심사 기기(self-service kiosks)를 이용해 입국심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공항공사는 22일 미 세관의 입국심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총 30대의 자동 입국심사 기기를 2백 10만불을 들여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20대는 지난달 이미 설치됐다.

지난해 로건공항은 북경을 비롯 파나마, 두바이, 이스탄불 등과 직항로를 개설했다. 이 결과 올해 6개월 동안 2백30만명의 외국여행객들이 로건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6.6% 증가한 수치다. 세관 요원은 가장 바쁠 때 무려 2000명을 입국심사해야 하는 고역을 치뤄야 했었다.

로건에는 현재 가장 큰 항공기인 A380이 4기 출입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로건은 내년에 이스라엘을 비롯 직항로를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요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사추세츠 공항공사는 자동화 기기를 도입했으며 상당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로건 공항에 20대의 자동화 기기를 설치한 결과 입국심사 시간이 19.4% 단축됐으며 승객들의 세관 통과 시간은 평균 23분정도로 단축됐다.

현재는 미국 및 캐나다 시민권자들만 자동화 입국심사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터치 스크린으로 된 이 기기는 세관 신고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묻고 여권을 스캔하며 사진을 찍은 후 영수증을 발행한다. 여행객들은 일반 승객과 다른 라인을 통해 입국심사관에게 영수증과 여권을 제시해 심사를 마치게 된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문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 간	그 룹 지 도	개 인 지 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불법체류 아동 임시 거처, MA 주민 의견 갈려

MA주 임시 거처 제공에 찬성 의견 근소하게 많아
미국 내 불법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 다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미성년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찬반으로 양분된 모습을 보였다. 패트릭 주지사는 최근 군사 훈련 시설 등을 활용해 최대 1천 명까지 불법체류 아동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는 아이들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가 제안한 내용은 매사추세츠 정부가 불법체류 아이들에게 임시 거처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연방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 거처는 최대 4달 동안 운영될 계획이다.

패트릭 주지사의 방안에 대하여 보스톤 글로브가 온라인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매사추세츠 주민의 50%가 패트릭 주지사의 제안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반면에 43%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는 ±4.9%이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의 임시 거처가 아닌 미국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질문으로 질문 범위가 넓어지자 결과가 반대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 주민 중 39%만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미국에 머물러도 된다고 생각했

다. 응답자의 43%는 불법체류 아동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를 진행한 소셜스피어의 존 델라 볼프 최고 책임자는 “여론조사 결과,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매사추세츠 주가 이민자들에게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패트릭 주지사의 제안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범위와 기한, 책임 한도, 비용 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의견이 조금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지난 가을 이후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수감된 미

성년 불법체류자가 5만명이 넘는다. 올해에만 최소한 6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2년의 1만 4천명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패트릭 행정부는 미국 남서부 국경 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밀입국 사태를 ‘인도주의의 위기’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는 불법체류 아동들이 매사추세츠 주에 오게 될 경우 주 정부가 거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

jsi@bostonkorea.com

타겟, 이미지 스캔으로 쇼핑하는 앱 선보여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거대 소매업체인 타겟(Target)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잡지에 실린 광고 이미지를 스캔하면 바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 이미지를 인식하는 최신 기술을 기업에서 상품 판매로 연결시킨 것이다.

이번 달부터 ‘인 어 스냅(In a Snap)’이라고 불리는 앱을 이용하면 타겟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광고하고 있는 10개 매거진에 실린 이미지를 스마트폰이 인식할 수 있다. 소비자가 광고 이미지를 스캔하면, 그 물건이 바로 타겟의 쇼핑 카드에 담기게 된다.

한 파이어플라이(Firefly)와 비교하면 타겟에서 출시한 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파이어플라이는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1억개의 상품을 인식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컴스코어의 앤드류 립스먼 부회장은 파이어플라이와 인 어 스냅 같은 앱을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하지만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는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놀라게 하기는 쉽지만 소비자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는 다른 문제다. 정말로 멋진 기술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소비 시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타겟은 인 어 스냅을 출시하기 위해 1년의 연구 기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타겟이 시작한 인 어 스냅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바코드나 쿼알코드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 이미지 자체를 인식한다는 것이 편리한 점이다. 그러나 특정 매거진에 실린 광고 제품만을 인식한다는 한계가 있다.

아마존에서 파이어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시작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홍삼정 이 필요한 순간?

홍삼으로 활력있게!!
건강한 여름나세요!

Easy Cut

아이스케줄이 많은 당신을 위해
홍삼정을 밖에서도 간편하게!

\$72 상당 선물 30 박스 한정선물이며 조기 소진시 마감됩니다.

홍삼정 에브리타임 1세트(30포) 구입 시 정관장 고급 골프 장갑과 \$50 상당의 휴대용 홍삼 농축액 분말 세트(3종) 무료 증정

FREE GIFT

최고급 양가죽 사용

NEW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신다!

홍삼정 에브리타임

2013년 정관장 최고의 히트 제품!

10ml x 30포 (한달분)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781-238-0303

보스톤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들 말실수 어디까지 용인되나

최근 커크 미니한의 설화로 토크쇼 진행자들 발언 되짚어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최근 보스톤 토크쇼 라디오 호스트 커크 미니한이 팩스 스포츠 여기자 에린 앤드류를 “비겁한 쌍X” 이라 불렀다가 되서리를 맞았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지나쳤다고 사과함으로써 특별한 징계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

지극히 보수적이거나 마초적이며 자극적인 말로 인기를 얻어가는 특성상 라디오 진행자들의 설화는 빈번하다. 늘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이들은 때로는 이로 인해 해고되거나 정직이란 징계를 받고 또는 그냥 징계 없이 어물쩍 넘어가기도 한다.



제이 서버린

보스톤글로브가 밝힌 과거의 징계 사례를 보며 어떤 발언 수위까지 허용되는지 알아보자.

우피와 앤소니(Opie and Anthony) 가장 악명높은 보스톤 라디오 해고 사태는 우피와 앤소니가 보스톤 라디오 진행자였을 때였다. 그들은 4월 1일 만우절 때 메니노 시장이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강력한 항의로 해고됐다.

제이 서버린(Jay Severin) 제이 서버린은 고액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였다. 극보수적이며 마초적인 서버린은 여러가지 문제 발언을 했지만 지난 2011년 인턴과 잡자리를 가진

것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해고됐다. “그는 인턴을 하는 여성들은 상사를 잘 알기 위해 나와 자야 한다. 또

정도였다. 그는 이전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에게 “범죄이민자”, “원시인들” 이라고 말해 정직을 당했다. 그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핵폭탄을 투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지만 아무런 반향도 일으키지 않았었다.

존 드피트로(John Depetro) 존 드피트로 2006년 녹색당 그레이스 로스 주지사 후보를 “똥보 레즈비언” 이라고 불렀다가 해고됐다. 그는 프로비던스의 라디오에 다시 고용됐지만 지난해 한 여성 정치인을 “창녀” 라고 불렀서 해고됐다.

세계의 각지의 사람을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 그렇다고 결코 창녀는 아니다. 이들은 정치에 관심 있는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라고 말했다. 비난이 일자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잤다.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반문할

데니스와 칼라한 (Denis and Callahan) 최근 문제가 됐던 미니한과 같이 라디오를 진행하던 존 데니스와 게리 칼라한은 지난 2003년 프랭클린 파크 동물원에서 탈출했던 조라는 이름의 고릴라를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흑인



제니스와 칼라한 쇼의 진행자 3명. 좌로부터 데니스, 미니한, 칼라한

커크 미니한, 여성 기자 비하 발언 후 급 사과

(보스톤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스포츠 라디오 WEEI 데니스와 칼라한 쇼 공동진행자인 커크 미니한이 팩스 스포츠 에린 앤드류 기자를 “비겁한 쌍X” 이라 칭했다가 비난을 받고 이를 급히 사과했다.

그러나 그는 사과 와중에도 그녀에 대해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해 진정으로 사과했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니한은 특별한 징계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사건은 에린 앤드류가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투수 웨인라이트가 은퇴하는 뉴욕 양키스 데릭 지터에게 치기 좋은 볼을 던져 안

타를 내준 것에 대한 인터뷰를 하면서 그를 옹호하는 듯이 넘어간 것을 두고 격노하면서 에린을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는 사과시 “에린 앤드류에게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야 했다. 실수였음을 인정한다. 잘못사용했다” 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그녀는 기자로서는 별로였다. 그녀가 결코 똑똑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팩스 티비는 얼굴만 보고 그녀를 뽑았을 것이다. 만약 15파운드만 더 살이 찌면 식당의 웨이추레스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또 비난했다.

hsb@bostonkorea.com



하위 카

학생에 빗대어 이야기했다가 광고주들이 광고를 빼면서 2주간 정직을 당했다. 이들은 당시에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했었다. WEEI 스포츠 라디오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있는 진행자들지만 늘 문제성 발언으로 줄타기를 벌이고 있다.

하위 카(Howie Carr) 극보수 라디오 진행자이자 보스톤헤럴드 칼럼니스트인 그는 2010년 자신의 고용사인 엔터컴을 비난했다가 1주일 정직당했다. 결국 펜과 그의 입은 칼보다 강했지만

방향을 고용주로 했을 때 부러진 대표적인 케이스다.

hsb@bostonkorea.com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EXCLUSIVE

\$ 239,000 ,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트위터에 이스라엘 비난한 미국특파원들 징계

미국 언론사주들의 친 이스라엘적 행위 기자들 분노

(애틀랜타=연합뉴스) 김재현 특파원 = 가자지구 전황을 전하는 미국 특파원들이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애틀랜타에 있는 CNN 본사는 이스라엘 현지에서 주민들을 욕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다이나나 맥네이 특파원을 러시아 모스크바 지국으로 전보 조치했다.

CNN은 맥네이 기자가 트위터 글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사과의 뜻도 밝혔다.

맥네이는 지난 17일 가자지구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스텔롯 언덕을 배경으로 전황을 생방송으로 전한 직후 트위터에 주민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스텔롯 언덕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폭탄이 가자에 떨어질 때마다 환호를 보낸다. 내가 말 잘못하면 우리 차를 파괴하겠다는 협박도 한다. 인간쓰레기"라고 썼다.

'인간쓰레기'란 표현이 논란을 일으키자 그는 해당 글을 삭제했으나 이미 옆질러진 물이었다.

CNN은 "생방송 리포트 중에 협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 데 화가 나 트위터에 글로 대응한 것"이라며 "취재진을 표적으로 삼은 사람들을 향해 던진 말이었지만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이에 하루 앞서 NBC는 가자지구에서 활동해온 아이만 모헨던 기자를 철수시키고 리처드 앵겔 특파원을 대

신 투입했다.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NBC는 모헨던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그가 평소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사건을 자주 올린게 소환의 배경이라는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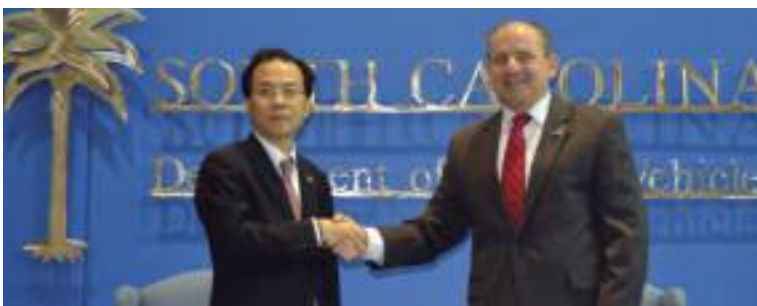
알자지라 통신원 출신인 모헨던은 트위터에 "팔레스타인 어린이 넷이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졌다. 몇 분 전 나는 그들과 공놀이를 했다"는 글과 함께 통곡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실어 국제사회에 공분을 일으켰다.

NBC 경영진의 이번 조치는 방송국 기자들 사이에 좌절과 분노를 낳고 있다고 허핑턴포스트는 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LA=헤럴드 경제) 최한승 기자 =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도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희범 주애틀랜타 총영사와 케빈 슈웨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자동차국 국장은 22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에서 서명했다. 이날 서명에 따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 중 운전면허 교환을 원하는 이들은 필요 서류와 소정의 수수료를 준비해 주내 16개 국제운전자 전용 자동차국을 방문하면 필기, 실기시험 없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김희범 미국 주애틀랜타 한국총영사(왼쪽)와 케빈 슈웨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자동차국장이 22일 '대한민국 경찰청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자동차국 간의 운전면허 상호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주애틀랜타 총영사관>

한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가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함에 따라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한 미국 정부는 메릴랜드,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텍사스, 플로리다, 오리건, 미시간, 아이다호, 앨라배마, 웨스트버지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

지아, 아칸소 등 16개로 늘었다. 스타벅스는 높은 경제 성장이 진행 중인 4700만 인구의 콜롬비아에서 향후 5년 동안 매장을 50개 까지 확대해 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애플, 아이폰 호조·아이패드 부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화섭 특파원 = 전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인 애플이 아이폰과 맥의 판매 호조와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 신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 갔다.

그러나 주요 상품 중 아이패드의 판매는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애플은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4 회계연도 3분기(6월 28일 까지) 실적을 발표했다.

이 기간에 매출은 374억 달러(6% 증가), 순이익은 77억 달러(12% 증가), 희석주당 이익은 1.28 달러(20% 증가)로, 전년 동기(매출 353억 달러, 순이익 69억 달러, 희석주당 이익 1.07 달러)에 이어 성장세를 지속했다.

총마진율은 39.4%로, 전년 동기의 36.9%보다 훨씬 높았다.

분기 전체 매출 중 미국 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9%였다.

이 기간 아이폰 판매 대수는 3천520만대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했으나 아이패드 판매 대수는 9.2% 감소한 1천227만대에 그쳤다.

중국 시장 신장세가 두드러진 점도 특징이다.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28% 늘었으며,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는 48%, 맥 판매는 39% 뛰었다.

애플 이사회는 보통주당 0.47 달러의 현금 배당을하기로 결정했다고 실적 발표와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1일 업무 마감 시간 기준 주주명부에 따라 사흘 뒤 배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애플 최고재무책임자(CFO) 루카 마에스트리는 "우리는 6월 분기에 영업을 통해 현금흐름 103억 달러를 창출했으며 8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배당과 자사주매입으로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말했다.

애플은 2014 회계연도 4분기가 이턴스로 매출 370억~400억 달러, 총마진율 37~38%, 영업비용 47억5천만~48억5천만 달러, 기타 수입 2억5천만 달러, 세율 26.1%를 제시했다.

애플의 이번 실적은 매출에서 월가의 평균 전망치를 살짝 하회한다는 점에서 약간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의 주요 경쟁자인 삼성전자와 달리 올해에도 성장세를 이어 갔다는 점은 주목된다.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현, 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원장
뉴욕 닥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원장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메모리얼 병원 재활학과 수석박사
위싱턴 닥터스 통증병원 원장
대우대학교 와계 교수
신원대학교 와계 교수
영동대학교 교수 | 희곡강
한양대학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MAD ACUPRESSURE

전신지압(Acupressure Therapy)
핫스톤
속 눈썹 연장, 웨이셀

전화 예약 : 617-970-6038 , 617-558-8870
시간 : 월요일 ~ 토요일 (10am ~ 8pm)
주소 : 634 Commonwealth ave (#204)
Newton center, MA 02459
website : http://www.medacupressure.com

국과수 원장 “유병언 과학적으로 100% 확신”

서중석 국과수 원장 국회 출석 “유병언 사체 맞다” ... 유 전회장 치아관련 치과의사 100% 일치 의견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4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체에 대해 "과학적으로 유병언씨임을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출석, 유 전 회장의 사체임을 확신하는지를 묻는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원장은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의 거듭된 물음에도 "제가 법의학을 25년 했는데 틀릴 수가 없다"고 확신했다.

서 원장은 "유병언 사건의 경우 (DNA) 비교 대상으로 구속 중인 형이 있고, 현장에서 확인한 유전자가 있다"며 "부계와 모계를 통해 완벽한 조합을 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틀렸다면 유전자 검사는 폐기해야 한다"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자신했다.

서 원장은 유 전 회장의 신장과 관련하여서도 "다중채널컴퓨터단층촬영

(MDCT)이라는 첨단 기계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유 전 회장의) 키가 159.3cm로 160cm에 가까움을 확인했다"고 했고, 이성한 경찰청장 역시 "유 전 회장의 키는 160cm로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순천경찰서에서 보낸 뼈 조각과 치아에서 확보한 것, 금수원에서 확보한 여러가지 증거물이 다 일치한다"며 "거기에 더해 신장과 치아 상태까지 모든 법의학적 증거가 동일하다. 틀릴 확률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유 전 회장의 치아 상태와 관련하여서도 "생존했을 때 치료한 의사에게 사전에 어떤 것을 치료했는지 쓰도록 했고, 그 치과 의사가 확인했을 때 100% 일치했다"며 "저희들이 볼 때는 (검사 결과가) 바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dkim@news1.kr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는 질문에 "유병언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유병언 사망 음모론 지속적으로 떠올라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돌연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음모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40일 전 전남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실은 유 전 회장이었다는 소식에 그의 뒤를 쫓던 검찰과 경찰조차 아연실색할 지경이었던 만큼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런 음모론 대다수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22일 오전 인터넷을 달군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조희팔 위장사망 논란'이었다.

3조5천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다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씨는 2011년 12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에도 조씨를 봤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자작극 의혹이 제기돼 왔다.

유 전 회장 역시 자신의 사망을 가짜로 꾸민 것 아니냐는 것이 음모론의 요지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와 관련해 변사체가 유 전 회장 본인이며 시신 바뀌지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사망진단서 외엔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조씨 사례와 달리 DNA 검사와 지문감식이 이뤄진 유 전 회장 사건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음모론은

경찰이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이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발표시점을 조절했다는 의혹이다.

이날은 의료민영화 입법예고 마지막 날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글 500여개가 올라왔고,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 접수가 폭주해 일시적으로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다.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 댓글을 달아 지난 대선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형사처벌 대상 19명을 확정했다는 소식도 이날 나왔다.

하지만 이런 뉴스들은 유 전 회장이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소식에 밀려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 네티즌은 "유병언을 내세워 정권에 부정적인 뉴스를 물어 버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날 밤 40일 전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이란 보고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들어와 검경이 발각 뒤집힌 사실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hwangch@yna.co.kr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일치한다고 경찰이 발표

최재경 인천지검장 부실 수사책임 사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수사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최재경 인천지검장(52·사법연수원 17기)이 24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검찰을 떠나면서' 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수사 과정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오로지 지휘관인 제 책임" 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의 업(業)과 부덕이 여러분과 검찰에 부담을 더한 것 같아 미안하고 가슴 아픈데 힘든 시기에 저 혼자 피하는 것 같아 미안하기 짝이 없다" 고 심경을 피력했다.

최 지검장은 수사를 이끈 김희종 2차장검사와 검거팀장인 윤재필 주영환 부장검사, 주임검사인 정순신 부장검사의 이름을 언급하며 "12명의 검사와 많은 수사관들이 5월18일부터 두 달 넘게 사무실 야전침대에서 생활하거나 범죄자를 찾아 전국을 다니며 고생했다" 고 치하하고 "그간의 적지않은 성과는 오로지 이들의 땀과 헌신 덕분이었다" 고 고마움을 표했다.

최 지검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과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2부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활약하며 현대차 비자금사건,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 등 수사를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때는 'BBK 사건' 과 '도곡동 땅 사건' 을 수사했다. 그는 이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며 정치검사로써 이름을 올렸다.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중수부장 등 특수수사의 엘리트 코스를 모두



'유병언 체포 실패' 로 검찰을 떠나게 된 최재경 인천지검장

거치며 일찌감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장 시절인 지난 2012년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검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검 중수부 문패를 내리려는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에 맞섰던 그는 결국 검란(檢亂)의 주역으로 몰리며 전주지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그는 수회 혐의로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던 서울대 동기 김광준 부장검사의 언론 대응을 도와주다 감찰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인사에서 그는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보였지만 같은해 12월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에 탈락하며 지금의 인천지검장으로 전보 발령됐다

hsb@bostonkorea.com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MATH GAME HOUSE

programs for the talented

Offering stimulating & fun sessions
for the curious minds since 2000

M.A in Math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UMMER STUDY 6/23 – 8/1

가을학기 시작 9/9

뉴튼 센터 617-527-0275
www.mathgamehouse.com
email: mathgamehouse@mac.com



검찰 “유병언, 순천 별장 압수수색 때 벽 안에 은신”

(서울=뉴스1) 진동영, 홍우람 기자 = 시신으로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 모그룹 회장이 지난 5월25일 전남 순천 별장 압수수색 당시 도망치지 않고 도피공간으로 마련된 별장 벽 안 공간에 숨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종 차장검사)은 23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유 전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착수 후 수사상황을 밝히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전남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체포했던 여성 신모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유 전회장이 별장 내 은신처에 숨어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앞서 신씨는 체포 후 5월28일 검찰조사 당시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떠보니 성명 불상의 남자가 유 전회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다시 잠에 들었다 깨보니 유 전회장이 혼자 사라지고 없었다”며 “압수수색 당시 이미 유 전회장이 별장을 빠져나간 상태였다”고 진술했었는데 이를 번복한 것이다.

검찰은 신씨가 검찰의 수사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검찰에 이같은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진술 확보 후 급히 별장으로 내려가 현장을 확인했고 별장 2층에서 통나무 벽을 잘라 만든 3평 남짓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간

안쪽에는 잠금장치가 있었고 외부에서 입구에 딱 맞도록 통나무를 잘라 끼워 위장한 상태였다.

검찰의 재수색 당시 유 전회장은 해당 장소에 없었고 유 전회장 것으로 추정되는 여행용 가방 2개만이 발견됐다. 가방 안에는 4, 5원으로 기재된 피지와 함께 현금 8억3000만원과 미화 16만달러(한화 약 1억6300만원)가 있었다.

가방에는 돈을 담을 수 있는 공간 일부가 비워져 있어 유 전회장이 도피과정에서 일부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나 그의 측근이 도피자금을 찾기 위해 이곳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잠복을 하는 등 감시를 벌였지만 유 전회장의 흔적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했다.

당시 시점은 경찰이 이미 인근 매실밭에서 유 전회장의 것으로 확인된 변사체를 발견한 이후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감시였던 셈이다.

검찰은 유 전회장을 놓친 뒤인 5월 26일 전남지방경찰청에 의뢰해 별장에 대한 정밀감식을 실시했지만 당시에는 이 은신처를 발견하지도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수사’라는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른 도피 의심지역에 대한 조사도 중요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촘촘히 막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유 전회장의 운전기사

였던 양회정(56)씨의 처제 유모씨 등 조사를 통해 양씨가 “유 전회장을 순천의 인근 숲속에 내려주고 왔다”는 얘기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도 했다.

유씨 진술에 따르면 양씨는 5월25일 새벽 소나타 차량을 타고 전주의 유씨를 찾아와 이같이 말했다. 양씨는 유씨에게 “유 전회장을 구하러 가자”고 제안했는데 유씨는 “온 집안 망할 일 있냐”며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대신 양씨를 경기 안성의 금수원에 데려다줬다고 했다.

순천 압수수색 이후 구원과 신도들과 유 전회장의 측근들은 전남 해남에 도피물자로 추정되는 물건들을 트럭으로 옮기는 등 검찰의 수사망을 돌리려 위장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또 최근까지 유 전회장의 측근들이 경기 양평에서 연락을 빈번히 주고 받으며 편선을 빌리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곳을 새로운 은신처로 보고 추적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구원과 신도들을 체포해 조사한 결과 유 전회장의 매제인 오갑렬(60) 전 체코대사가 구원과 신도 소유의 양평 별장을 둘러보고 도피준비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오 전대사는 별장주인 신도에게 5500만원을 도피자금으로 맡기기도 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오 전대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국내 도피 중인 유 전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소재와 관련해서는 “검거와 관련된 단서가 최근에도 나온 것이 있다”면서도 “검거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순천 변사체 신원 확인 결과를 21일 밤에 통보받은 뒤 허망하고 허탈했다. 사체가 유 전회장이 아니길 바랐다.”며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 추적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유 전회장을 검거하지 못하고 변사체로 발견하게 돼 할 말이 없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23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지난달 27일 전남 순천 송치체 인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별장에서 찾아낸 현금다발을 공개하고 있다.

“발견된 시신이 유 전회장이 아닐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진심으로 그러길(유 전회장이 아니길)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특별수사팀을 지휘해온 김희종 2차장검사는 유 전회장 사망 확인 후 검찰에 쏟아지는 비판과 질책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무능하다는 질책과 비난은 얼마든지 감수하겠지만 유병언 부자를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일념으로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병언 부자 검거과정은 모두 수사팀장인 저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과 비난은 오로지 저의 몫이다”며 수사비판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렸다.

김희종 특별수사팀장은 “세월호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남았다”고 덧붙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배 중인 양회정 등 핵심 도피조력자를 추적하는 한편 유 전회장 일가를 신속히 사법처리하고 책임재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hong87@news1.kr

박대통령, 다음주 청와대에서 여름 휴가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8일부터 5일간 청와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휴가는 다음 주 여대에 가지 않고 관내에서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휴가기간 동안 특별한 일정 없이 청와대 관내에 머물며 독서 등을 하면서 조용히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은 출판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받은 100여권의 도서를 추려 이 중 몇 권을 박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통령의 휴가 일정을 정하는 데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며 “세월호 상황과 민생경제활성화 양쪽 조건을 현재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잇따른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 낙마 등으로 마음 편히 휴가를 떠

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관측도 있었고, 오히려 심신을 재충전하고 향후 국정운영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세월호 사태의 여파로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대통령마저 휴가를 떠나지 않을 경우 소비위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일단 휴가를 떠나되 청와대에 머물며 가까운 민생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의 여름휴가는 경호상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그 시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나,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 통상 7월 말~8월 초 기간 중 며칠을 골라 국내 모처에서 휴식을 취하는 한편, 향후 정국 구상을 가다듬어왔다.

박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작년엔 7월29일부터 8월2일까지 닷새간 휴가를 냈으며, 이 기간 중 경남 거제의 저도를 다녀왔다. 저도엔 과거 대통령 별장으로 쓰이던 ‘청해대(靑海臺)’가 있다. birakoca@news1.kr

유병언 '와시바' 신발...이베에서 8만5천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경찰이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맞다며 제시한 그의 신발 브랜드 '와시바'가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이 밝힌 '와시바'와 브랜드 '와시바'는 전혀 다른 이름이다.

전자는 '세탁가능한'이란 의미

의 독일어 '바슈바르(Waschbar)'를 영어식으로 잘못 읽은 것이며, 후자는 잘못 읽은 발음의 브랜드 '와시바(Washiba)'이다. 우연의 일치이거나 누군가가 '바슈바르'를 브랜드 '와시바'로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와시바(Washiba)는 일본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요지 야마모토(

山本耀司)가 독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와 콜라보레이션해서 만든 브랜드 Y-3의 서브브랜드 이름이다. 단, 가격이 저렴한 것은 아니지만 명품은 아니다. 와시바 플랫폼 슈즈는 온라인 이베에서 평범한 나이키화 운동화 수준인 85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allday33@news1.kr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JULY 25, 2014 - JULY 31, 2014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For coupons, Event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Toll Free No.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SUMMER

HEAT WAVE HOTTEST SAVINGS!

Enjoy the best prices on all your summer outings essentials at Hmart.

신나고 설레는 여름바캉스 준비도 역시 H마트! 저렴하고 간편하게 H마트에서 만나보세요!

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

WHITE PEACH 백도

lb. **\$1.99**

FRESH 돼지 등갈비
PORK BABY BACK RIB

lb. **\$3.99**

HAITAI 해태 누가바
NOUGAT ICE BAR

2.36fl.oz. x 8bars/pkg.

\$3.99

UV PROTECTION
SUN VISOR RG-011/ea.

UV 차단 투명 선캡

\$4.99

<p>Organic 100% DELICIOUS</p> <p>STONYFIELD Organic Milk 스투니필드 유기농 우유 All Varieties/64fl.oz.</p> <p>\$3.49</p>	<p>소화에 탁월한 Napa Cabbage 배추 box</p> <p>\$9.99</p>	<p>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Purple Yam 보라색 고구마 lb.</p> <p>\$1.68</p>	<p>면역력을 높여주는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lb.</p> <p>\$0.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변비가 소화불량자에 좋은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p> <p>\$1.49</p>	<p>원기회복에 좋은 TYSON Cornish Hen 냉동 영계 lb.</p> <p>\$1.99</p>	<p>단백질이 많아 두뇌활동에 좋은 Chicken Wing 닭 날개 lb.</p> <p>\$2.49</p>	<p>Boneless Marinated Beef Short Rib 양념 갈비살 (주물럭) lb.</p> <p>\$8.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Jeju Island Yellowtail 제주 냉동 방어 lb.</p> <p>\$1.99</p>	<p>금토일만 세일 가격 적용 FRI/SAT/SUN LIMITED TIME OFFER</p> <p>Jeju Island Fluke 제주 활광어 lb.</p> <p>\$13.99</p>	<p>SUHYUP Frozen Oyster 수협굴 8oz./pkg.</p> <p>\$3.99</p>	<p>TONGTONGBAY Mussel Meat 통통배 홍합살 16oz./pkg.</p> <p>\$3.99</p>
<p>OHSUNG Hong Ramyun 오성 홍라면 Hot/Mild 4.2oz. x 5ea./pkg.</p> <p>\$2.99</p>	<p>PALDO Bibim Men 팔도 비빔면 4.58oz. x 5ea./pkg.</p> <p>\$2.99</p>	<p>HAIOREUM Roasted Seaweed Laver 해오름 밥도둑 김 All Varieties/3.5oz.</p> <p>\$2.99</p>	<p>CHORIPDONG Seafood/Shrimp Mixed Pancake 초립동이 해물야채/새우 원자 10.58oz. x 2ea./pkg.</p> <p>\$3.99</p>
<p>DONGWON Bai Top Shell 동원 자연산 굴뱅이 14.1oz.</p> <p>\$4.99</p>	<p>HAIOREUM Imitation Crab Meat Sticks 해오름 게맛살 2.2 lbs.</p> <p>\$3.49</p>	<p>DANYA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단야 메밀소바 3 lbs.</p> <p>\$4.99</p>	<p>DANYA Soba Tsuyu 단야 소바소스 16.7fl.oz.</p> <p>\$2.99</p>
<p>CAFE IGUACU Instant Coffee 이과수 원두커피 7.95oz.</p> <p>\$5.99</p>	<p>HAITAI Wafers Cream/Strawberry 1.97oz.</p> <p>2\$1</p>	<p>LIFE Ice Breaker 라이프 빙수기 2개</p> <p>\$11.99</p>	<p>SONGWOL Towel Set 송월 타올 세트 3ozs/ea.</p> <p>\$8.99</p>
			<p>MONINI Grapeseed Oil 모니니 포도씨유 33.8fl.oz.</p> <p>\$6.99</p>

H마트와 함께하는

NEW! CUCKOO

New Rice Cooker Launch Event
 쿡쿠 밥솥 신제품 출시 기념 이벤트
 (UNTIL JULY 31ST, 2014)

Stainless steel inside and out, not only the cover! Check out the new eco-friendly CUCKOO Full Stainless Steel 2.0 eco!

CRP-AHSS1009FN/ Approx. For 10 people

깨끗이 씻어 내줄 인라 밥 모두 스테인리스로 진화한 쿡쿠 친환경 모델 스테인리스 2.0 에코! 이제 더 건강한 에코 라이프를 경험하세요.

PURCHASE ECO-FRIENDLY CUCKOO FULL STAINLESS STEEL 2.0 ECO RICE COOKER WITH \$20 DISCOUNTED PRICE AND TAKE HOME A CUCKOO ELEC. MIXER!

해오름 롤전병과 함께 즐기는 한국 전통의 맛!

Korean Crispy Waffle Roll!

Let the good times roll with all of our yummy flavors!

HAIOREUM Crispy Waffle Roll
 All Varieties/7.23oz. All Varieties/14.8oz.

\$2.99 \$4.99

H마트와 함께하는

CHUNG JUNG ONE

Hot Sale!

(A mouthful of deliciousness!)

청정원 최고의 제품들을 특별세일가로 구입하세요!
 July 25 - 31 at Hmart Burlington

CHUNGJUNGONE Cooking Vinegar
청정원 요리초
31.74fl.oz. **\$5.49**

CHUNGJUNGONE Vinegreat Drink
청정원 홈초 기획세트
석류+블루베리/석류+복분자
30.4fl.oz. x 2btl./pkg. **\$12.99**

Scan our Qr-code w/ your smart phone for more information.

Find us on: **facebook**

www.facebook.com/hmartofficial

Hmart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기동민 사퇴, 수도권 야권연대 커다란 영향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7·30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서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전격적인 후보 사퇴가 야권의 재보선 판도를 재형성하고 있다.

우선 서울 동작을에선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후보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간 1대1 대결 구도로 한판 승부가 펼쳐지게 됐다.

기, 노 후보의 단일화로 일정부분의 단일화 효과도 예상된다. 단일화 이전 두 후보 개인 지지율은 노 후보와의 지지율과 큰 격차가 났었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이 지난 20~23일 격전지 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 후보의 지지율은 46.0%로 기 후보(17.2%)와 노 후보(13.7%)를 큰 폭으로 앞섰다. (유선 RDD 500명과 휴대전화 패널 200명을 통한 전화 면접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

그러나 기, 노 후보의 단일화로 그간 노 후보의 독주가 이어지던 동작을 판세를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CBS가 여론조사업체 '포커스컴퍼니'에 의뢰, 지난 19일~20일 동작을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

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6% 포인트)에 따르면, 노 후보와 노 후보간 양자대결에서 노 후보는 42.7%를 기록해 41.9%를 기록한 노 후보와 오차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단일화 과정은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천호선 후보의 사퇴로 경기 수원정에선 새정치연합 박광운 후보로의 단일화되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임태희 새누리당 후보는 34.3%, 박광운 새정치연합 후보는 29.6%, 천호선 정의당 후보는 4.9%로 각각 기록됐다. 박, 천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임 후보를 이길 승산이 상당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단일화에 대한 역풍도 우려된다고 예상한다.

기 후보의 후보사퇴로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공천실패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 지역을 14년간 지켜온 허동준 전 지역위원장의 반발을 무릎쓰고 광주 광산을 공천 신청자인 기 후보를 전략공천한 결정적 이유 속에는 '박풍(朴風·박원순 바람)'을 이용해 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기동민 7·30재보선 동작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2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대열에 합류된 박 시장은 동작을에서 57.45%를 득표율을 얻어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41.80%)를 큰 격차로 이겼다.

기 후보는 사실상 정치 신인이긴 하지만 박 시장 곁에서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대표적 '박원

순맨'이기 때문에 박풍의 재현을 기대하며 당내 반발 속에서도 전략공천을 강행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박원순 마케팅'에 실패했고 그 결과 지지율에서 노 후보에게 뒤지던 기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기 후보는 당 지도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광주 광산과 동작을 선거구 모두를 놓치고 말았다. 기 후보는 후보사퇴 기자회견에서 '지도부에 아쉬움이 없느냐'는 질문에 '제가 감당해야 할 저의 몫'이라며 '지도부는 지도부의 선택과 결단이 있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pjy1@news1.kr

여당 '권은희 비판글 삭제' 선관위 조치 유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천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24일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를 비판하는 당 공식 트위터 글을 삭제하도록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23일) 중앙선관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권 후보에 대해 "위증의 대가로 보는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자 광주시선관위는 지난 17일 "허위 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중앙선관위의 심의를 요청했고 중앙선관위는 최근 "새누리당의 트위터 게시물은 공식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지난 17일 광주시선관위의 조치 또한 특별한 위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민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트위터 글은 권 후보의 공천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반하여 삭제 조치 등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민천주 새누리당 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당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 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이 내용을 당사자인 새누리당에게 회신하기도 전에 미리 언론에 알렸다는 점"이라며 "또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 당에 보낸 공문의 내용과 달라 부정확한 내용이 미리 언론에 보도됐고, 이는 당 차원의 대응이 불가하게 함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중 자당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의 회신대로 새누리당 트위터의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광주시선관위의 트

위터 글(귀하가 트윗한 위 게시물은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에 해당하므로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은 오히려 새누리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의 자유를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민 대변인은 또 "지금 이 시각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는 허위사실로 새누리당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버젓이 게재돼 있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고 상응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은희, '재산축소의혹' 선관위에 이의신청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측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보도한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를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각각 청구했다.

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까지 뉴스타파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공식선거법 상 이의신청을 하고 언론중재위에도 언론조정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식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내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에 이의신청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을 할 수 있고, 심의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심의토록 규정돼 있다.

앞서 권 후보 선대위는 지난 20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권 후보, 남편 수십억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으며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smith@news1.kr

천호선, 수원영통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7·30 경기 수원정(영통)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호선 정의당 후보는 24일 "박광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이명박 비서실장(임태희)의 복귀를 막아달라"며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수원 영통 보선의 야권후보는 박광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단일화됐으며, 영통 보선은 임태희 새

누리당 후보와 박 후보간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천 후보의 사퇴는 이날 수원 영통과 함께 '빅딜설'이 제기됐던 서울 동작을 보궐선거에서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가 전격 사퇴를 선언, 자당 노회찬 후보로 후보단일화가 이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잊을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압구정

압구정이 **갈비**와 **냉면** 전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 617-527-7888

단체석 노래방 시설 완비/뉴튼 센터에서 차로 3분 거리

<보스톤 처음으로 **즉석**에서 직접 뽑는 냉면을 맛보세요>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의 20% 할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크업
매니-페디큐어
왁싱
각종 펌

웨딩헤어+메이크업
일요일도
예약받습니다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교육 컨설팅의 처음과 끝을 함께합니다”

교육관련 consulting

- 명문 중,고,대학 진학 상담및 수속
- 방학 특별 활동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주소: 47 3rd St, Suite 201
Cambridge, MA 02141
전화: (617) 225-2200
Fax: (617) 225-2877
이메일: juliet2647@gmail.com

군 “사이버사령부, 조직적 정치 개입” 결론

정보·논리·게시3개 조직분담... ‘야 후보 패러디’ 그림 배포 군 수사당국,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19명 형사입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군 수사기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련 댓글’ 의혹과 관련해 조직적 정치 개입이 있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을 ‘북한이 먼저다, 문재인’으로 패러디한 그림을 트위터상에 게시·배포한 사람이 사이버사령부 대북심리전단(530단) 소속 김모 하사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이미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비롯해 심리전 단장인 3급 군무원 박모씨, 심리전단 산하 2대장·3대장 등 모두 19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다만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대북 심리전 성과에 ‘정치개입 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KBS는 보도했다.

조사본부는 또 지난해 10월 수사 착수 직전 사이버사 요원들이 삭제한 정치 글 7000여건도 1차로 복원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최종 수사결과는 앞선 중간 수사결과를 뒤집는 것으로, 부실·축소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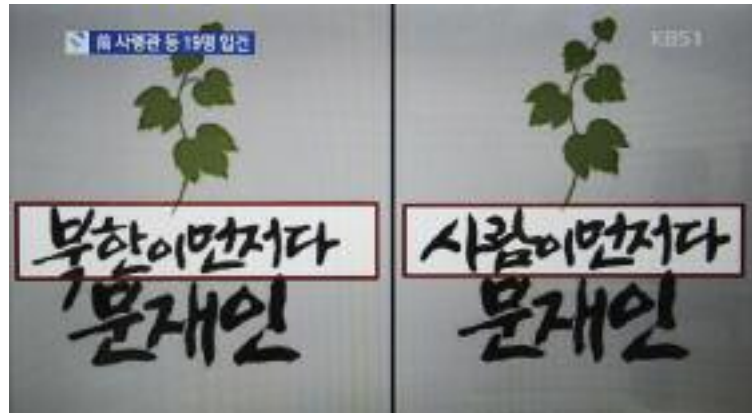
백낙중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해 12월 19일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속도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사이버사령부 정치 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글’ 작성 몸통으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지목하면서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본부는 다음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사건을 군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군은 KBS 보도에 대해 수사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적 정치 개입한 사이버사령부...군 당국, 19명 형사입건을 확정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북한이 먼저다 문재인’으로 패러디한 그림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로 불법 정치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최근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배포한 것을 확인했다고 이날 KBS가 보도했다.

조사본부는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슬로건과 포스터인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이 ‘대북심리전 일환’ 이라던 군 당국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북한 대응과는 무관하게 ‘대선 개입’ 행위를 한 것이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대북심리전단 아래 3개 조직을 두고 1대는 정보수집, 2대는 정치 글 게시, 3대는 대응논리 개발을 전담해 왔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하사는 2대 소속인

군수사기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형사입건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 가능성...조만간 최종 수사결과 발표 있을 듯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대선개입은 아니다”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중간발표를 통해 “심리전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 수행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해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본인도 인터넷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대응작전간 활용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 6000여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 가운데 정치적 성향의 글은 1만 5000여건으로 분류됐고 특히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글은 210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윗선은 없다는 식으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

백 본부장은 “사이버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을 그은 뒤 “다만 사

령관들은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 보고 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됐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연계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및 요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군 형법 제94조 ‘정치관여’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 금지’, ‘군인복무규율’, ‘SNS 행동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입건하고 19일 부로 직위 해제했다. 특히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교사죄 등을 적용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10명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삭제된 게시물을 추출해 추가적인 의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련 댓글 관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군(軍) 수사기관에 형사입건된 것으로 7월 6일 밝혀졌다.

이들 두 전 사령관들은 지난달 중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형사입건됐으며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혐의는 정치관여(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연 소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맡았고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거쳐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 준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옥도경 준장(좌), 연제욱 소장(우)

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이 ‘정치글’ 작성의 핵심이었다고 지목하며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들은 당초 형사입건 없이 군 내부적인 문책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으나 결국 조사본부에 형사입건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연 소장과 옥 준장이 지난 4월 군 장성 인사 때 각각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사이버사령관에서 교체된 배경에도 단순 내부조치 외에 이미 수사로 인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

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두 전직 사령관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 여부 등 최종 판단이 나오면 사실상 수사 역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본부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 건, ‘정치글’은 2100여 건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정치관련 글이 3만여 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은 6000여 건까지 더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건된 심리전 요원들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당시의 11명에서 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seojiba@news1.kr

 **한의원 선유당**

진료 과목

- 통증치료 알려지
- 불임 갱년기 여성질환
- 여드름 한방피부미용(주름개선 안면침)
- 소아진료 성장침 비염 아토피
- 교통사고 유학생 여행자보험 적용가능



www.sunudang.com

**1208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617.327.1812**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환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Walnut Pastry
cocohodo

Cocohodo Premium Mints

코코호도과자에서

프랜차이즈 원하시는 분을 모집합니다



Review Application



Interview Applicant



Market Research Feasibility Study



Approval Signing



Grand Opening



Franchisee Training



Construction



Design Drawing

서울: 01-588-1303, FAX: 031-339-4080
LA: 213-448-7417, 714-870-4003
MA: 212-230-1002



작은 금액 사업 시작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컷 25불 / 여자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MLB 양키스 단장 "다나카, 팔꿈치 통증 여전"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오른쪽 팔꿈치 인대 부분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 대신 재활을 선택한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26·뉴욕 양키스)가 여전히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이언 캐시먼 양키스 단장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의 뉴욕 라디오 방송 '마이클 케이 쇼'에 출연해 다나카의 근황을 전했다.

캐시먼 단장은 "다나카가 열흘 전 혈소판 풍부혈장 주사(platelet-rich plasma)를 맞은 이후 공은 손에 쥐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팔꿈치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으로 7년간 1억5천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고 올해 양키스 유니폼을 입은 다나카는 18경기에 등판해 12승 4패, 평균자책점 2.51을 기록하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지난 8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경기에서 6⅓이닝 동안 안타 10개를 맞고 5점을 내주는 부진한 투구 이후 오른쪽 팔꿈치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부분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근 메이저리그(MLB) 추세로는 이 경우 '토미 존 서저리(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키스 구단과 다나카는 보통 회복에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리는 수술 대신 6주 재활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캐시먼 단장은 이에 대해 "우리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랐을 뿐"이라며 "(세 명의 의사가) 모두 수술을 권유하지 않았다. 아울러 다나카가 수술을 받을 경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보장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토미존 수술의 성공 확률이 높은 사실은 알지만 어떤 선수들은 돌아왔을 때 전과 같지 않았다"면서 "(



양키스의 일본인 에이스 다나카 마사히로

앤디 페티트 이후 최고의 좌완 유망주라는 평가를 받았던) 매니 바누엘로스 는 수술 전과 후가 달랐다"고 지적했다

있기 때문에 무리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는 "다나카가 호전되고 있지만 아직 팔꿈치가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복귀 시점을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국 축구, 9월 베네수엘라-우루과이와 평가전 확정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한국 축구 대표팀이 9월 베네수엘라, 우루과이와 국내에서 친선경기를 개최한다.

대한축구협회는 9월 A매치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 우루과이와 국내 친선 경기를 개최하기로 양국 축구협회간 합의를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9월5일에는 베네수엘라, 8일에는 우루과이와 각각 경기를 치르며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0위 베네수엘라는 2014 브라질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5승5무6패로 우루과이에 밀려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으나 남미 특유의 개인기가 돋보이는 팀이다. 한국과의 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루과이는 2014 브라질 월드컵 남미 예선을 5위(7승4무5패)로 마친 뒤 플레이오프에서 요르단을 1,2차전 합계 5-0으로 물리치고 월드컵 역사상 12번째 본선 무대를 밟았다.

본선에서는 16강전에서 콜롬비아에 0-2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으나 2011 코파 아메리카 우승국이자 FIFA 랭킹 6위의 톱 클래스 팀이다. 한국과의 역대 전적도 6전 5승 1무로 앞서있다.

한편 일본대표팀은 같은달 5일 우루과이, 9일에는 베네수엘라와 친선경기를 벌인다.



박지성 향한 황선홍의 찬사 "후배지만 존경한다"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4년 K리그 올스타전에서 '팀 K리그'를 이끌 황선홍 포함 감독이 현역에서 은퇴하는 후배 박지성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 축복을 보냈다.

2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는행 K리그 올스타 with TEAM 박지성'을 하루 앞두고 마련된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선홍 감독은 먼저 "오랜만에 스승 히딩크 감독을 만나 반갑다. 같이 앉아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영광"이라면서 "이 자리에 앉게 해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는 뜻을 전했다.

올스타전에서 팀 K리그를 이끌 황선홍 감독이 은퇴하는 후배 박지성에게 찬사를 보냈다. 후배지만 존경스러웠다고 극찬했다. /뉴스1 DB

이어 "많은 팬 그리고 선수들과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국축구가 어려운 상황인데 희망찬 미래의 첫 걸음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선홍 감독은 스승 히딩크 감독과 후배 박지성에게 존경의 뜻을 전했다. 황 감독은 "내가 감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 2002월드컵이었다. 축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크게 느꼈고 그것은 곧 히딩크 감독의 영향이었다"면서 "지도자 생활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는 말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은퇴하는 후배 박지성에게도 존경심을 전했다. 황 감독은 "다들 알겠지만 박지성은 현역 시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수였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던 선수"라면서 "지금까지의 업적에 대해서는 후배지만 존경을 표한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는 말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계수교장교회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 오후 8시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새벽기도회 : 오전 6시 (별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루츠: 8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당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양뚜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 양뚜안 다블뤼 한인 성당에서는
새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부터 시작합니다.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
stdaveluychurch.org
Mass: 11:30am(교중미사), 4:30p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The Best OnDemand

FULL HD

Welcome, TBO

엔터테인먼트 & TV 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FESTIVAL!

티보 플레이(TBO Play) 런칭 이벤트

이벤트 시행 기간 : 7월 14일 ~ 8월 31일(개통일 기준)
이벤트 내용 :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3개월 후 \$39.99로 과금)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The Best OnDemand, TBO



Avoid the Summer Slide by enrolling at JEI

Summer 2014

Avoid Summer Learning Loss

JEI Programs are aligned with **Common Core State Standards** to give students the additional help they need. Children can customize their summer classes by selecting subjects they need the most help in.

FREE Enrollment June 1-30

JEI Math
JEI English
JEI Reading & Writing
JEI Problem Solving Math
JEI Korean / 재능한글

재능교육
JEI
Learning Centers

T. 781-365-0075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www.jeikids.com



성경말씀을 통한 기쁨으로 사는

제실일안식일에수제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학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부: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계재운전: 화요일 저녁 8:30(스카이프)
영양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제생원 센터 / 17년간 헌신들을 위해 매달 무료 강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고국의 품에서 당신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유방·갑상선센터**
유방암수술, 재건, 성형
- **암통합케어센터**
원스톱 진단에서 치료까지
- **자궁근종센터**
수술없이 자궁근종 치료
- **심혈관·뇌졸중센터**
심근경색, 뇌졸중, 24시간 진료
- **척추·관절센터**
두통, 어깨, 허리, 비수술 통증치료
- **내시경센터**
위암, 대장암, 내시경 치료



고국방문 건강검진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00만원 / 여: 210만원
입원 종합검진	남: 60만원-60만 / 여: 45만원-70만원
당일 종합검진	남: 45만원-45만 / 여: 45만원-55만원

진료과목

소화기병센터, 자궁근종센터, 건강증진센터, 인공신장센터, 인터벤션센터, 영상의학센터
정신건강의학센터, 유방·갑상선센터, 척추·관절센터, 암통합케어센터, 심혈관·뇌졸중센터
이비인후과·비뇨기과, 재활치료센터, 응급의학센터

HURAM 해외의료사업팀장 김 수남 | 이메일: huramceo@haram.kr
문의전화: 070-4141-4040 | 카카오톡: 010.3469.4040 (00: 24시간 응급 HURAM)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소영
이민 변호사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단기연수인 비자 (H-3)	
주재원 비자 (L-1)	 양선영 이민 변호사
특기자 비자 (O-1, P-1)	
취업이민 (NW, EB-1, EB-2, EB-3)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패트리어츠 트레이닝 캠프 To-Do List



훈련 중인 패트리어츠 선수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공식적으로 7월 24일에 트레이닝 캠프를 시작하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9월 7일 시즌 개막일까지 45일의 시간만이 남아 있다.

패트리어츠는 지난 시즌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덴버 브롱코스에 패하며 시즌을 마감했다. 올해 오프시즌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객관적인 전력은 패트리어츠가 브롱코스에 밀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근 3년 동안 패트리어츠는 AFC

챔피언십 경기에 진출했지만 수퍼볼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브롱코스를 넘어 수퍼볼에 진출하기 위해 빌 벨리치 감독은 2014 시즌이 시작하기 전까지 팀 전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것이다.

앞으로 남은 한 달 반의 시간 동안 패트리어츠가 꼭 해결해야 할 이슈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타이트 엔드 깊이 보강

과거에 패트리어츠에서 타이트 엔드 포지션이 가장 강력했던 때가 있었

다. 그러나 아론 헤르난데스가 불미스러운 일로 팀을 떠나고 탑 그롱코스키가 부상으로 고전하면서 지금은 가장 취약한 포지션이 되었다.

그롱코스키는 무릎 수술 이후 재활 훈련에 전념하고 있지만 시즌 개막전부터 경기를 뛸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그롱코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타이틀 엔드 선수들은 아직 주전으로 뛰기에는 기량이 부족하다. 패트리어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이틀 엔드 선수들의 실력을 끌어올려 시즌 시작 전까

지 확실하게 그롱코스키의 뒤를 받쳐 줄 선수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쿼터백과 리시버의 궁합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는 자타가 공인하는 NFL 최고 쿼터백이다. 그러나 브래디는 지난 시즌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브래디의 패스를 받을 와이드 리시버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패트리어츠에 새로 합류한 대니 아멘돌라를 비롯해 루키 시즌을 보낸 선수들이 올해는 패트리어츠에서 2년차가 된다. 시즌 시작 전까지

와이드 리시버와 브래디가 충분한 연습을 통해 서로 궁합을 맞춰야 패트리어츠의 위력적인 공격력이 살아날 것이다.

루키 오피시브 라인맨 활용

패트리어츠의 주전 오피시브 라인맨인 라이언 웬들과 덴 코넬리는 지난해 실망스런 시즌을 보냈다. 이 두 선수는 NFL 최악의 라인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결과 패트리어츠는 드래프트에서 오피시브 라인맨을 3명이나 보강했다.

지난 시즌 패트리어츠의 루키 와이드 리시버들이 보여줬듯이 루키 선수들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루키라고 한가롭게 시즌을 보낼 여유는 없다. 패트리어츠는 새로 합류한 루키 오피시브 라인맨들이 NFL에서도 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세컨더리 경쟁

세컨더리 포지션에서 세이프티는 데빈 매커티가, 그리고 코너백은 대럴 레비스가 확실하게 주전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러나 매커티와 레비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출전이 보장되는 선수는 없다.

코너백 포지션에서는 첫 4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브랜든 브라우너의 공백을 누가 메울지가 관심이다. 세이프티 포지션 역시 3-4명의 선수들이 더 많은 출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jsi@bostonkorea.com

정철화 프로의 골프 이야기 253

막내 조카와 함께한 골프 라운딩 추억 만들기



글쓴이: 정철화, Ph.D.
978-726-6979
jungc811@hotmail.com
Stow Acres Country Club
58 Randall Rd, Stow, MA 01775

요즘 우리집은 북적거린다. 자그마한 랜치형의 집에 12명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밑에 동생 가족이 작년 여름에 이곳으로 이민을 와서 우리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중이었는데 막내 동생 가족이 여름방학을 맞아하여 미국 여행 겸하여 한달 반의 계획으로 우리집에 거하고 있는 중이다. 이십칠년전인 1987년에 이곳으로 유학을 와서 한국에는 거의 나가지 못하고 지내다가 삼형제가 각기 아들 하나 딸하나씩 낳아서 이렇게 한지붕 아래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잘 믿겨지지 않는다. 특히 덩치가

삼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막내동생은 필자가 유학을 올때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어느덧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막내동생 부부는 둘 다 골프를 좋아해서 우리 부부와 함께 라운딩을 하기로 했다. 어제 서로 시간이 맞아서 갑자기 라운딩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아내 대신 딸이 라운딩을 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네명이서 골프장에 가려고 했는데 우리 막내 조카에게 골프장 구경을 시켜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와서 미국에서의 골프장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자 함께 가기로 했다. 인원수가 5명이었지만 막내 조카는 내 카트에 잘 데리고 있기로 하고 라운딩을 시작하였다. 막내동생 부부는 프로 골퍼인 큰 형과 학교 대표 골프실력을 가진 조카의 골프 솜씨에 흠뻑 매료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막내 조카는 골프 카트를 타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마냥 즐거워했다. 미국 나이로 8살인 막내 조카는 첫 두세 홀

은 골프카트 자체에 만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골프치는 것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급기야 자기도 골프치고 싶다고 애걸하기에까지 이르러 모두의 공들이 그린에 올라갔을 때 큰 큰아빠(둘째 큰아버지는 큰아빠, 첫째 큰아버지는 큰 큰아빠로 호칭)의 퍼팅 차례가 되면 대신 퍼팅을 하게 해 주었다. 우연히 만들어진 기회였는데 제법 퍼팅에 대한 센스가 있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재능이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였던 것이다. 후반 들어서는 몇개의 아이언 샷들도 하게 해 보았고 마지막 홀에서는 급기야 드라이버도 시도하게 해 보았다. 매번 공을 맞춘다는 것이 신기했지만 했



다. 온도가 90도를 훨씬 넘는 더운 날씨였지만 여덟살 먹은 조카, 심대 딸, 중년의 동생부부와 함께 한 골프 라운딩은 참으로 재미있었고 또한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스포츠가 골프라는 것을 몸소 진하게 체험하게 한 하루였다.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어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접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촛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영어를 배우세요!

전 세계 70 여개국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쳐간 CSI 의 ESL 아카데미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 아카데미 영어 프로그램

ESL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인텐시브 영어와 아카데미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와 실험, 견학과 다양한 사회적 행사 참여를 통해 언어와 미국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전문적, 학문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언어능력을 제공합니다.

ESL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 J-1 비자를 포함한 F-1 비자로 변경
- 다른 학교로 이전 도와줌
-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 공식적인 여름방학
- 여러 일정의 수업
- 기초영어부터 어드밴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COMPUTER
SYSTEMS
INSTITUTE**

지금 전화주세요!

888-886-5740

esl.csinow.edu

Charlestown, MA • Worcester, MA
Chicago, IL • Skokie, IL • Lombard, IL



1년 학비 \$3,600!!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 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3/17/14.



NEWSTAR BOSTON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대부분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여종의 파출실적 / 10여 개국 대표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송경빈
978-844-150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749,900
Westwood, MA
3 Beds, 2 Baths, 2475 sf.
Updated kitchen, windows, roof, hot water tank etc.
이현주 401-935-3397



\$559,900
Sharon, MA
3 Beds, 2.5 Baths, 1972 sf.
Many updates, Close to schools
#1 Best Place to Live in US
이현주 401-935-3397



\$729,900
Methuen, MA
4 Beds, 2.5 Baths, 3907 sf.
잘 관리된 넓고 아름다운 주택
Jay Lee 781-654-5281



\$650,000
Framingham, MA
4 Beds, 2.5 Baths, 2920 sf.
조용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Near shopping on #9
Jay Lee 781-654-5281

단독주택 Single Family



\$539,000
Reading, MA
3 Beds, 2 Baths, 2366 sf.
새로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Easy access to Highway
Jason Jeon 617-642-5670



\$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



\$399,000
Newton, MA
Living Area: 987 sf.
Approx. Acres: 0.24 (10250 sf.)
Great potential for builders
OT Kim 617-620-8242



\$899,900
Lexington, MA
4 Beds, 3 Baths, 2534 sf.
넓은 공간,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bathrooms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콘도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7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670,000
Newton, MA
3 Beds, 1.5 Baths, 1788 sf.
대중교통, 하이웨이 진입 편리
Jason Jeon 617-642-5670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Space for Business
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100% 한국인 부동산 그룹 / 2014년 10월 / 1000여 명의 에이전트 /
다문화가정 상담 / 20년 경력의 브로커 / 한국 및 해외 부동산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줄 송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Janice Lee
978-806-6023

Drop off Store



\$45,000
Lincoln, MA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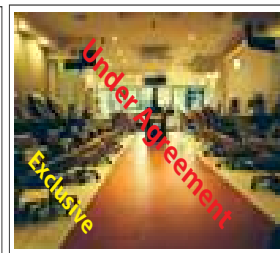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Nail Salon



\$280,000
Burlington, MA
Near Burlington Mall
운영 잘 되는 네일 살롱
Anna Jung 617-780-1675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Deli



\$99,900
Chelsea, MA
Amazing Deli with
lottery, cigarette, ATM for sale
Anna Jung 617-780-1675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99,999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병원 건물 렌트

Worcester
3000 SF.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0, No.29 July 25 2014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47

파리 크레페 (The Paris Creperie)

278 Harvard Street
Brookline, MA 02446
617-232-1770
www.pariscreperie.com

선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박에바다 기자 = 쫄깃하고 달콤한 전통 파리 크레페를 포함 자신들만의 독특한 크레페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파리 크레페’는 건강과 맛, 두마리 토끼를 잡으며 많은 이의 입맛을 돋운다.

7년동안 매니저로 일해 온 잭 루든(Jack Ludden) 씨는 “건강과 맛 둘 다 챙겨야 한다. 맛있으면서 좋은 재료를 사용한 크레페를 제공하려고 항상 노력한다”고 말한다.

가업으로 이어가는 이 식당이 자랑하는 주메뉴는 당연히 크레페다. 일반적으로 크레페는 잼, 휘핑크림, 설탕, 초콜릿 등을 넣어 먹는다. ‘파리 크레페’에서는 아보카도,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등이 들어간 채식 크레페, 모짜렐라 치즈, 페스토, 익힌 토마토 등으로 만든 이탈리아 스타일의 크레페 등 식사메뉴부터 뉴텔라, 프레즐, 크레커, 과일 등을 넣어 만든 디저트용 크레페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자신이 원하는 재료만 골라 넣은 크레페를 주문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채식 크레페 메뉴, 글루텐 프리 크레페를 사용한 메뉴까지 추가해 더 많은 고객을 확보했다.

이들은 고객들의 다양한 입맛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크레페를 개발해 선보인다. 계산대 옆에 조그마한 ‘코멘트 박스’를 마련해 고객들의 음식 평이나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환영한다. 한 손님이 ‘터키로 크레페를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추천하자 개발을 거듭해 인기없던 소고기 크레페를 제외하고 터키 크레페를 추가했다.

매니저 루든 씨는 “식당이라면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고객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파리 크레페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메뉴는 바로 스무디다. 보통 스무디를 맛있게 만들기 위해 설탕에 절여진 열린 과일이나 시럽 등을 듬뿍 넣지만, 파리 크레페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서 맛있게 만들도록 개발에 개발을 거듭한다.

최근 메뉴에 추가된 스무디 중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과일이나 요거트 외에 시금치, 케일, 당근, 견과류, 치아 씨드 등이 재료인 것도 있다. 재료만 보면 ‘이게 과연 달고 맛있을까’라는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각 스무디마다 어울리는 과일 주스나 사베트, 꿀 등을 섞어 ‘건강하고 맛있는 스무디’를 제공한다.

루든 씨는 “단골 고객도 많고 손님들이 우리 음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은 음식은 내놓지 않는다”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고객에게 재미를 주는 방법 중 하나로, 뉴텔라 초콜릿 크레페를 주문하면 크레페 위에 원하는 문구(이름이나 축하메시지 등)를 초콜릿으로 적어 준다.

가게 전체를 렌트하면 장소와 함께 무제한 크레페가 제공돼 생일파티도 가능하고, 보스톤 글로브에 소개된 파리 크레페의 푸드 트럭도 각종 행사나 파티를 위해 렌트할 수 있다.

epark@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겠습니까?

주일예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형락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견인	617-338-2352
고등교육위원회	800-632-8075
고등교육정보센터	617-727-7785
공중위생국	800-442-1171
구세군	617-624-6000
국세청	617-536-7469
남서명	800-829-1040
로간국제공항	617-976-6200
미아찾기	800-235-6426
백배지역	888-477-6721
보스턴공립학교	617-345-7958
보스턴수도	617-635-9000
보스턴시청	617-989-7000
보스턴총영사관	617-635-4500
사우스익	617-641-2830
사회보장국	617-345-7958
성폭행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 (Verizon)	617-555-1515
텍스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상담협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단체협의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산악회	774-270-1948
백산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고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몰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몰든교회	617-792-8780
그레시언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미연합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도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의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림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64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바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꽃	
미스티학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꽃

미스티학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라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공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민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64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 교회	508-799-4488
웨스트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바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학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드(투영목)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스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라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공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킴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민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벨렐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64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시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7/18 벨몬트지역 세탁소, 풀타임으로 카운터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617-309-6140

7/25 레드망고에서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T. 617-997-5698

7/25 Burlington mall, South Shore mall 헤어 약세사리카트, 함께 일하실 분. T. 312-350-0159

7/25 Granby 지역에 있는 보딩스쿨 관리형 유학 담당 직원 모집 Email: cis_ryan@chungdahm.com

Looking Korean interpreter

Looking for an experienced certified Korean interpreter. Certification should be from a qualified program, would prefer experience but will consider new certificate holder. Must be able to interpret in a variety of community settings.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you can set your own hours and earn an above average hourly wage. Please send your resume to susan_kelliher@ccab.org or call 617-464-8122. Immediate openings.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7/18 드라이클리닝 셔츠 홀세일합니다. 픽업 & 딜리버리 (딜리버리만 구함) T. 978-766-6831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7/25 식당 또는 카페 비즈니스 구매합니다. 보스톤지역, 오너분 직접 연락 환영. T. 617-653-2366

7/25 534 Commonwealth Ave-럭셔리 2베드 2베스 \$3000 8/1일 입주 또는 \$3250 9/1일 입주 T. 781-733-9294

7/25 636 Beacon Street - 럭셔리 2베드 1베스 \$3055 8/1일 입주 T. 781-733-9294

4/25 **N[매 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케롤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4/25 **N[매 매] 가게 - 2**
가게 2,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 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매상 월 \$13000, 순수익 월 \$3000 렌트 월 \$500 새주인에게 verizon,Sprint,metro,cricket의 LTE 전화기를 pageplus 로 플래싱 하는 기술도 같이 전수해 드립니다. T. 864-505-5784 (Kim)

6/13 **N[매 매]**
뷰티서플라이 매매. 한국에서 10년 넘게 영업 하였고 리타이어 하기 위하여 급매 하고자 합니다 면적 3,000sf, 연매상 \$500,000, 매매가 \$250,000 위치:테네시 멤피스 Neighbor Food 월마트,뷰티살롱및 이발소가 많은곳에 위치함. T. 901-267-2991

6/13 **N[구인]**
도라빌 지역 보험회사 여직원 구함 자격요건 : 영어, 한국어 가능하신 분. 시간 : 9am-5pm Mon-Fri T. 770-458-9001

6/13 **N[구인]**
우리들척추신경원에서 여직원을 구합니다.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하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resume를 보내주세요. Accidentrecoverycenter5460@gmail.com

6/13 **N[구인]**
둘루스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함께 일하실 여직원을 찾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은 이력서를 eun@eparklaw.com 로 보내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서울설령탕 SEOUL SOULONGTANG

SUMMER SPECIAL 냉면개시!

서울 SEOUL KOREAN - SUSHI - WINES

한식 세계화의 종가집이 되겠습니다.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6 Cambridge St, Boston
617.973.6680
SeoulFoodBoston.com

배우 지성 재발견의 역사

(서울=뉴스1스포츠) 권수빈 인턴기자 = 지성의 배우로서 행보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지성은 지난 10일 개봉한 영화 '좋은 친구들'에서 현대 역을 맡아 묵직한 존재감을 표출하며 영화의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처음 도전하는

을 안겨줬다. 이어 19금 로맨스 영화 '나의 PS 파트너'에서는 사랑에 울고 웃는 뮤지션 현승 역으로 분해 못 여성들에게 새로운 설렘을 안겼다.

지난해 흥행작인 드라마 '비밀'에서는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나쁜 남자 조만혁으로 분해 신드롬 수준의 인

기를 누렸다. 지성은 애증과 집착을 오고 가는 복잡한 감정을 폭 넓은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전했다. 특히 민혁 캐릭터가 집착할 때마다 시청자들은 '조토커' 등 수십 가지 별명을 붙여주며 열광했다. 이는 최우수 연기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이번 영화 '좋은 친구들'에서 연기한 현대 역은 감정을 꼭 누르고 마지막까지 열쇠를 쥐고 있어 관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캐릭터였다. 지성은

첫 누아르 장르 도전에도 성공적으로 영화 속에 녹아들었다는 관객 평을 얻고 있다.

지성은 "그간 영화 출연을 자제했던 이유는 내가 좀 더 채워진 사람이 된 후에 도전해보고 싶어서였다. 드라마와 영화 가리지 않고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다"고 앞으로 배우로서의 방향에 대해 밝혔다.

ppbn@news1.kr



누아르 장르에서 감정을 최대한 절제해 '지성의 재발견'이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다양한 캐릭터를 향한 지성의 갈증은 꾸준했다. 그 시작은 SBS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였다. 지성은 엘리트 코스와 거리가 먼 철부지 재벌 3세 차지현 역을 소화했다. 기존 반듯한 이미지를 벗고 허술하고 귀여운 매력을 발산해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이윤지, 9월 품절녀 클럽 합류 "예비신랑은 누구?"

(서울=뉴스1) 온라인팀 = 배우 이윤지가 오는 9월 결혼한다.

23일 이윤지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이윤지가 9월 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 신랑은 치과의사로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다 올 상반기부터 연인 사이로 발전해 사랑을 키워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혼식에 대해 "식은 양가 친지들을 위한 배려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회 및 주례, 축가 등 구체적인 진행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윤지의 예비 신랑은 33세의 치과의사로 배려심 깊고 든직한 성품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윤지는 2003년 KBS 2TV '자유선언 토요일-산장미팅 장미의 전쟁' 출연을 계기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해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했다. 최근에는 KBS2 '왕가네 식구들'에서 열연을 펼쳤다

이윤지 결혼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윤지, 갑자기 결혼 소식어네", "이윤지, 축하드려요", "이윤지, 치과의사랑 결혼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uyoung0403@news1.kr

클라라, 언더웨어 몸매 공개 '섹시·스포티'

(서울=뉴스1스포츠) 이한솔 기자 = 배우 클라라가 언더웨어 화보를 통해 섹시하면서도 스포티한 매력을 뽐냈다.

클라라는 24일 공개된 화보 속에서 파란색 스트라이프 언더웨어에 반팔 상의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는 짧은 상의 아래로 군살 없는 배를 드러내며 섹시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클라라는 앞서 섹슈얼한 느낌을 강조했던 화보들과 달리 이번 화보에서는 스포티하면서도 쿨한 언더웨어 스타일링을 선보였다.

또 클라라는 촬영 현장에서 촬영이 진행될 때마다 꼼꼼한 모니터링과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헤어와 메이크업까지 변화를 주는 등 섬세함을 보여 스태프들을 감동시켰다는 후문이다.

건강미 넘치는 클라라의 언더웨어 화보는 슈어 8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slee61@news1.kr



이승환 "신해철·서태지와 합동공연 하고 싶다"...성사되려나?

(서울=뉴스1) 온라인팀 = 가수 이승환이 서태지-신해철의 합동 공연에 대해 언급했다.

이승환은 23일 오후 방송된 SBS 파워 FM '두시 탈출 컬투쇼'에 자신의 밴드와 함께 출연하면서, 휴가 중인 정찬우를 대신해 DJ로 김태균과 호흡을 맞췄다.

이날 이승환은 과거 신해철이 서태지와 자신까지 포함한 3인의 합동 공연을 제안했던 것에 대해 "나 역시 서태지, 신해철과 함께 합동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신해철은 지난 1일 '두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신해철-서태지-이승환의 합동 공연을 바라는 청취자의 이야기에 "내년쯤 공연이 성사될 수도 있다. 서태지와는 얘기를 해 봤고 이승환은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승환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태지, 신해철 합동공연은 꿀잼일듯요. 라이브로 대차게 한판! 전 이 공연 찬성이예요"라며 합동 공연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날 이승환은 "음악계에 있는 친구들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렇게 함께 공연을 하면 후배들에게 깃발처럼 보이는 공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자의 약간 다른 음악 색깔이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DJ 김태균은 "이승환 씨도 신해철 씨도 허락했

으니 이제 서태지 씨만 오케이하면 된다"라며 "방송을 듣고 있다면 서태지 씨는 문자를 보내 달라"고 너스레를 떨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승환 발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승환, 오 저렇게 셋



이 공연하면 대박", "이승환, 서태지-신해철 라인 좋다", "이승환, 진짜 나이 안 먹는 느낌", "이승환, 셋이 꼭 공연 보여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js753@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7월 14일 ~ 7월 20일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한 여름밤의 꿈 San E
- 02 눈, 코, 입 태양
- 03 Darling 걸스데이
- 04 이제 그만 싸우자 허각
- 05 명수네 떡볶이 박명수
- 06 I'm in Love 에일리
- 07 단발머리 AOA
- 08 오늘부터 1일 케이윌
- 09 하늘색 약속 god
- 10 우산 윤하



1위
KBS2 주말연속극
참 좋은 시절
24.8%



2위 MBC 주말드라마 왔다! 장보리 22.1%



3위 KBS1 일일연속극 고양이는 있다 19.7%

- 4 KBS1 KBS9시뉴스 16.8%
- 5 KBS2 개그콘서트 15.2%
- 6 SBS 아침연속극(나만의당신) 15.0%
- 7 KBS2 일일드라마(빠꾸기둥지) 14.7%
- 8 KBS1 정글의법칙(인도양) 13.2%
- 9 KBS1 전국노래자랑 13.1%
- 10 KBS1 러브인아시아 12.7%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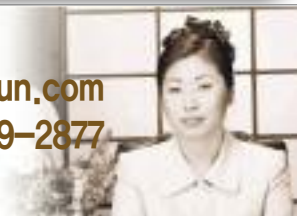
숫자 퍼즐 (Sudoku)

9			6	1			3	
					7		2	6
				9		1		8
8					5		6	
		3	9		6	8		
	7		2					4
6		8		2				
3	5		4					
	9			8	3			5

7월 27일 - 8월 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세심한 배려의 말이</p> <p>● 운수: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적당한 운동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울 수 있습니다. ● 금전: 갑작스런 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모든 면에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부부나 연인 사이에 너무 가깝다보니 말을 안 해도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의 말이 부족해 서운할 때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84, 72, 60, 48, 36년생은 27, 1일 길일, 31, 2일 주의.</p>	<p>소띠 뜻밖의 지출에 주의해야</p> <p>● 운수: 성급하게 매매를 진행시키면 일이 어렵게 꼬여가게 됩니다. 순리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세요. ● 금전: 금전적으로 좋지 않는 시기입니다. 남을 너무 믿지 말고 뜻밖의 지출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어찌 보면 지금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주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8, 2일 길일, 31, 1일 주의.</p>	<p>범띠 즐겁고 소중한 만남을</p> <p>● 운수: 박력 있는 추진력과 결단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날에 대한 계획을 재설정하는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금전: 생산업이나 제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호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 애정: 함께 있는 시간들이 즐겁고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말에는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이나 스포츠를 찾아내서 멋진 계획을 세워보세요. 86, 74, 62, 50, 38년생은 31, 1일 길일, 27, 2일 주의.</p>
<p>토끼띠 순조롭게 풀리고</p> <p>● 운수: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사회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익이 될 것입니다. ● 금전: 평상시에 환풍 두문 모아둔 비상금을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데 지출하거나 오긴 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 애정: 위기에 있던 애정문제가 순조롭게 풀리고 있습니다. 고독한 사람들은 새로운 로맨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7, 30일 길일, 28, 31일 주의.</p>	<p>용띠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p> <p>● 운수: 아직은 때가 아니고 돌아가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변화를 주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지출이 많다보니 물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군요. 특히 신용카드 사용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대에게 마음이 쓰이는 자신을 발견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8, 30일 길일, 27, 29일 주의.</p>	<p>뱀띠 희망이 있는</p> <p>● 운수: 현재 처한 문제를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들과 상의하면 의외의 돌파구를 찾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경영에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에 따른 수익도 얻게 되는 희망이 있는 주입니다. ● 애정: 너무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이 바로 서로가 호의적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는 때이니 적극성을 띠어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9, 1일 길일, 27, 30일 주의.</p>
<p>말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p> <p>● 운수: 머뭇거리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때를 만났으므로 뜻을 세워 활동하면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매상이 증가하고 돈이 따라옵니다. ● 애정: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다고 하듯이 어디에서든지 자기가 할 것입니다. 누구든 진심으로 대하면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0, 2일 길일, 28, 31일 주의.</p>	<p>양띠 외유내강으로 나가야</p> <p>● 운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외유내강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인심도 얻고 귀인의 협조도 얻을 수 있습니다. ● 금전: 당장은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동업보다는 혼자 하는 일이 실속이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상대를 완전히 믿어주세요.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들추지 말고 그냥 믿어주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31일 길일, 28, 29일 주의.</p>	<p>원숭이띠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p> <p>● 운수: 절망이 있으면 희망이 보이고, 또 희망이 있으면 절망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 금전: 우리네 인생은 수학 공식처럼 항상 1+1=2가 아닙니다. 때로는 크게 +알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알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 애정: 지속적이고 진심어린 상대의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8, 1일 길일, 30, 31일 주의.</p>
<p>닭띠 우호적인 태도를</p> <p>● 운수: 별일도 아닌 것으로 주변 사람들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 금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으므로 자신의 힘이 미칠 수 있는 한도까지 선을 그어놓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에게 섭섭하게 대한다고 화를 내면 싸움만 납니다. 먼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2일 길일, 28, 31일 주의.</p>	<p>개띠 모가 난 것보다는 둥글둥글한 것이</p> <p>● 운수: 언제나 모가 난 것보다는 둥글둥글한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금전: 남에게 빚을 지거나 빌린 것이 있으면 가능한 한 빨리 돌려주세요. 더 이상 미루다가는 시끄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서운한 일이나 마음에 걸리는 일은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세요. 그때그때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0, 31일 길일, 29, 1일 주의.</p>	<p>돼지띠 돌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p> <p>● 운수: 반갑고 기운이 나게 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알리고 싶어집니다. ● 금전: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시기를 만났다고 하였습니다. 문서로 인한 이익이 기대되고 횡재수도 있었습니다. ● 애정: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보다는 돌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는 것이 실속 있는 때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8, 31일 길일, 30, 2일 주의.</p>

유채영 사망, 쿨 멤버에서 배우까지 '독보적 캐릭터'

(서울=뉴스1스포츠) 윤한슬 기자 = 위암 투병 끝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유채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던 유채영은 24일 오전 8시 병원에서 끝내 숨을 거뒀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한 유채영은 지난 1989년 그룹 펀수들로 데뷔했다. 이후 1994년 그룹 쿨(Cool) 멤버로서 '너 이길 원했던 이유'를 발표했다. 쿨을 탈퇴한 이듬해 그룹 어스(Us)로도 활동하며 얼굴을 알렸다.



1999년 다시 솔로 가수로 나선 그는 '이모션(Emotion)', '이별유애' 등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배우로서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유채영은 영화 '색즉시공', '누가 그녀와 잤을까?', '색즉시공' 과 드라마 '천명:조선판 도망자 이야기', '패션왕' 등에서 개성 강한 감초 역할로 작품에 활력을 더했다.

특히 그는 각종 예능에도 출연하며 재미와 웃음을 위해 망가지고 다재다능한 끼를 선보이는 등 독보적인

캐릭터로 자리잡았다.

지난달에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MBC 표준FM '좋은 주말 김경식, 유채영입니다'를 진행하는 열정을 보였으나 병세가 악화돼 하차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채영, 연예인으로서 참 많은 즐거움 줬었는데 안타깝다", "유채영, 항상 밝은 캐릭터였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채영, 웃는 모습 늘 기억할게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hs0514@news1.kr

총잡이-운처럼 널 사랑해, 수목극 3파전

(서울=뉴스1스포츠)이한슬 기자 = 수목드라마가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는 가운데 '조선총잡이'가 시청률 선두를 달리고 있다.

2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4일 방송된 KBS 수목드라마 '조선총잡이'는 11.9%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이 기록한 11.6%에 비해 0.3%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날 MBC '운명처럼 널 사랑해'는 10.6%의 시청률로 2위, SBS '괜찮아 사랑이야'는 9.1%로 3위를 차지했다.

현재 '조선총잡이'는 꾸준히 수목극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운명

처럼 널 사랑해'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또 지난 23일 첫 방송된 '괜찮아 사랑이야' 역시 당일 9.3%의 시청률로 시작하며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이에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목극 대결이 궁금해진다.

hslee61@news1.kr



'해적' 김남길 "손예진과 호흡, 두 번째라 익숙하고 편해"

(서울=뉴스1스포츠)이한슬 기자 = 배우 김남길이 손예진과의 호흡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남길은 23일 오후, 영화 '해적:바다로 간 산적' (이하 해적) 언론시사회에서 상대역으로 호흡을 맞춘 손예진에 대해 "드라마 '상어' 이후 두 번째로 만났다"며 "서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 연기를 하는데 편안했다"고 말했다.

김남길은 이어 "두 번째로

만났기에 관객들에게 새로운 떨어지지만 익숙함 안에서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며 "극중 알콩달콩한 동굴신을 초반에 찍었는데, 전혀 어색함 없이 촬영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손예진도 "나 또한 김남길 씨와 편안하게 영화 끝까지 촬영했던 것 같다"고 동의했다.

한편 '해적'은 조선 건국 보름 전 사라진 국새를 찾기 위한



조선 최강 도적들의 격전을 그린 액션 영화다. '댄싱퀸' 이석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배우 김남길, 손예진, 유혜진, 김태우, 설리 등이 출연한다. 오는 8월6일 개봉.

ahn1113@news1.kr

천지보살

운명주공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음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시작부터 마감까지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김 씨의 뿌리 (5)〉

신라 김씨와 가락 김씨의 시조는 김일제?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감속성 흥평현 남귀향 도상촌에 있는 김일제묘 (한무제의 배장묘) 묘비

신라 문무왕 비문에 신라 김씨의 시조로 언급된 투후(稅侯) 김일제(金日磾, BC 134 - BC 86)는 흉노 우현왕 휴저왕(休屠王)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BC 127년 흉노를 정벌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한무제가 위청, 광거병을 시켜 흉노를 공격하자 흉노의 좌현왕 훈야왕과 우현왕, 휴저왕이 맞서 싸웠지만 흉노의 세가 궁하게 되었다. 결국은 좌현왕이 한나라에 항복하면서 일제의 아버지 휴저왕을 살해했으니 일제가 14살이 되던 해였다.

김일제는 어머니 (1)알지(闕氏)와 동생 윤(倫)과 함께 한나라 군의 포로가 되었고 김일제는 노예의 신분으로 한나라 궁성에서 말을 키우는 전역을 맞게 되었다. 흉노의 왕자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김일제의 의연한 모습이 한무제의 시선을 끌게 되어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되었다. 김일제는 한무제로부터 김씨(金氏)성을 사성받게 되었는데 이는 흉노인들이 금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어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김씨 성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김일제는 세계 최초의 김씨가 된 것이다.

한무제가 김일제를 신임한 것은 아주 각별한 것이었다. 한 번은 한무제가 자객에게 암살당하려는 순간에 김일제가 몸을 날려 한무제의 목숨을 구한 뒤로는 김일제가 무제의 최측근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무제가 죽을 때 김일제, 광광, 상관걸, 상홍양네 사람에게 후사를 부탁한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일제가 죽기 직전에는 한무제의 유언에 따라 투정후(稅亭侯) 즉 투후라는 제후에 봉해졌는데 이 벼슬은 본인이 사망하면 자손에게 계속 전해질 수 있는 특별한 제후 벼슬로 일제가 죽은 후 5대까지 계승되었다. 특별하게 투후라는 별칭을



김해 대성동 29호분 동북

붙인 이유는 김일제의 부왕 휴저왕의 영지가 황하 상류에 있는 하투(河套)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한선제 때 세도가 광광의 자손들이 반역죄로 몰락한 다음에는 김일제 일가는 한나라 제일의 세도가문이 되었다. 김일제의 증손 김당(金當)때는 그의 이모부 왕망(王莽)의 고모 왕정군(王政君)이 한원제(BC 48 - BC 33) 황후, 효원황후(孝元皇后)가 되고 왕망이 전권을 잡으면서 김씨들의 세력도 끝없이 부상하게 되었다. 김일제 일가로 제후가 된 사람만 80명이 넘었다고 한다.

김씨가 번성하는 왕망이 한나라를 뒤엎고 신(新, AD 8 - AD 23) 나라를 세우면서 절정에 달하지만 신나라가 20년도 지탱 못 하고 후한(後漢) 광무제에게 멸망당하자 김씨가 영화도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광무제는 한나라를 멸망시킨 왕망의 배후세력인 김씨들에게 보복의 칼날을 들이쳤다.

김씨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광무제의 칼끝을 피해 도피하는 것이었다. 당시 김씨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기록이 발견됐다. 서기 864년 향년 32세로 당나라에서 사망한 신라 김씨 부인의 묘명에 그 내용이 적혀있었다. 김씨 부인은 재당 신라인 김충의의 손녀이자 김공량의 딸이었다. 그녀의 묘명에 김씨들이 요동으로 피신해서 살게 되었고 그들 김씨가 자



대당 김씨부인 묘명(산시성 시안시 비림 박물관 소장)

신의 조상이라는 글을 올려놓았다. 즉 김일제의 후손이 요동으로 피신했고 그 후에 신라 김씨인 자신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산외대 권덕영 교수가 발견한 “대당 김씨 부인 묘명(大唐 金氏 夫人 墓銘)” 은 중국 산시성 시안시(西安市) 비림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왕망이 사망하고 딱 19년 후에 한반도 최초의 김씨 김수로왕이 김해 구지봉에서 가야의 왕으로 태어났고(AD 42), 그로부터 23년 후에는 신라 김씨의 시조 김알지가 신라의 서울 금성(金城)에서 태어났다. 중국 김씨들이 몰락하자마자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춰 한반도에 새로운 김씨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오늘날 만주의 요서, 요동, 한반도 서북지방, 전라남도 해안 및 김해, 제주도, 그리고 바다 건너 규슈,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왕망 때 딱 10년만 통용되었던 화천(貨泉)과 한무제 이후로 중국의 공식화폐였던 오수전(五銖錢)이 한반도 서쪽 해안을 따라 출토되고 있다.

이것은 김일제 후손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탈출하면서 도피경로에 남긴 흔적이 아니겠는가? 왕망은 황제로 즉위하자 종래부터 오수전이 통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천이

라는 새 동전을 만들어 유통시켰다. 예전에도 새로 나라를 세우면 구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폐 개혁을 하는 것이 기본 순서였다. 왕망의 경우는 새로 나온 화천에 대한 백성들의 거부감이 너무 거세어서 민란이 줄을 이었다. 결국 10년만에 화천 주조를 중지시키게 되었다.

왕망을 무찌르고 후한(後漢)을 건국한 광무제는 응당 왕망이 만든 화천이 유통되는 것을 중지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천을 좋아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화천(貨泉)의 천(泉)자를 풀이하면 백수(白水)가 되는데 백수는 바로 광무제 출신지명이었기 때문이었다. 김일제 후손들이 중국을 탈출하는데 화천(왕망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무제가 도와준 셈이다.

김해 회현리 패총은 삼한시대부터 금관가야 멸망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형성된 조개무덤이다. 동쪽 구름에는 예전 가야의 궁성터로 짐작되는 봉황대 유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많은 집터가 확인되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 조개껍질을 비롯한 생활 쓰레기를 버린 것이 회현리 패총이 됐을 것이다. 이곳에서 화천(왕망전)이 출토되었다. 왕망전을 사용했던 사람이 김해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가야 건국 신화가 시작된 구지봉과 봉황대 유적지 사이에는 대성동 고분군이 있다. 왕의 위세품이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가야 왕과 왕족들의 무덤군으로 추정된다. 대성동 29호, 47호분에서 흉노 리더의 상징물인 동북이 출토됐다. 김해 양동리 235 호분에서도 또 다른 동북이 출토됐다.

동북은 흉노인들이 말등에 싣고 다니는 취사도구이며 제사 지낼 때는 제물을 담은 제사 도구로도 쓰인다. 흉노뿐 아니라 스키타인들이 수장의 상징물로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다. 이들이 지도자의 권력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때는 동북을 물려준다고 한다.

김해에서 동북이 세 개나 출토된 것은 흉노의 수장에 필적하는 사람이 김해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 대성동 왕족묘지에서 발굴된 것은 가야 왕족이 흉노의 수장이거나 수장들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무제 때 흉노 활동 지역

(1) 알지(闕氏): 흉노말로 '알' 은 금(金)이나 왕(王)을 의미한다. 그들 은 왕의 부인을 알씨(闕氏)라고 불렀다. 흉노족은 말은 있었지만 문자가 없어서 표기는 한자로 했었다. 알씨의 '씨' 를 한자로 표기하고 발음하면 '씨' 가 아니고 '지' 로 발음하기 때문에 알지가 된 것이다. 알지는 왕비를 뜻하는 보통명사지 고유명사가 아니다. 알씨가 한반도에 들어와서는 '아씨' 가 되었고 경상도에서는 '아지' 로 되었다가 '아지매' 가 되었다. 일본 천황가에서 일년에 한번 지내는 시상제 때 한반도로부터 한신(韓神)을 초혼하는데 한신의 이름을 '아지매' 라고 부른다. 축문의 맨끝부분은 일본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아지매 오소 오소 어서 어서 ...' .



백린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일본의 침략정책과 조선총독의 고려대장경 간행 (4)

금주는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높거니와 남만주와 열하성으로 연결되는 교차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점이다. 노일전쟁시 제3군사령관 “노기마레스케 “대장이 “征馬 (세이바) 進마즈 人語라즈 錦州城外斜陽니立즈”라고 읊은 금주 말이다. 나는 이 금주에서 8.15 해방을 맞았다. 관동군은 복진해서 마점산 (馬占山)의 근거지 지지히로를 공격하고 2월 5일 북만의 할빈을 점령함으로써 만주사변은 일단 막을 내렸다.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은 당시의 육군대신 미나미지로 였다. 미나미 육군대신은 만보산사건과 유조호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의 군사령관과 사단장 회의를 소집하여 만주와 몽고문제를 적극 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사실 일본의 침략전쟁은 이 만주사변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관동군은 만주를 점령한 다음 (만몽문제해결방침의 대강에) 따라 1932년 3월1일 만주국을 건립하고 국명을 만주제국이라고 했다. 그리고 청조 마지막

황제였던 부이(선통제)를 집정관(후에 황제라고 했음)에 추대했다. 수도는 장춘(長春)으로 정하고 신경(新京)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연호는 대동(大同)이라고 했으며 국기는 5색 황기 였다. 만주국은 부이황제를 정점으로 한 제국이였다. 그러나 국방과 치안(경찰)은 일본제국이 맡았고 정치의 실권은 관동군 제4에서 지도했다. 일방행정은 총무처장관 고마이도구조가 시행했다. 부이는 이름만이 황제였지 실권 없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관동군은 신생 만주국을 왕도락토 (王道樂土) 五족협화(五族協和)라고 선언했다. 과연 그러한 이상국가였을까 나는 신경에서 7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만주의 실정을 좀 안다. 만주인의 정치행동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정치단체라고 하는 협화회(協和會)가 있었으나 관동군의 지도하에서 만주국을 대내외에 선전하는 협력단체에 불과했다. 사실 만주국은 자주독립국가가

아니었다. 주권과 자유가 없는 일본의 괴뢰국가에 불과했다. 만주의 부이 황제는 청조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宣統帝)이다. 중화민국은 혁명과업을 완수한 다음 북경의 자미성에 은거해있던 청조의 마지막 황제 부이(선동황제)를 자미성에서 추방했다. 북경주재 일본공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이를 데려다가 일본공사관에서 보호했다. 그리고 사태가 불안해 지자 1934년에 보다 안전한 천진의 일본조계로 옮겨서 보호하고 있다가 만주국이 성립되면서 데려다 황제의 자리에 앉힌 것이다. 중국은 만주국을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도 승인을 거부했다. 국제연맹은 1933년 1월 27일 “일본군의 만주에서 철퇴의 권고안과 만주국의 불승인 결의안을 총회에 상정하여 43개국 중 42개국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일본은 주장하기를 만몽은 일본제국의 생명선이며 따라서 만주점령은 일본의 국책이라고 선언하면서 국제연맹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일본은 만주침략을 여러 말과 방법으로 변명하지만, 중국사는 물론 세계사도 만주사변이 일어난 1931년 9월 18일을 일본의 침략전쟁의 시작으로 확실히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거래 줄었는데... ‘올 캐시 주택구입’은 늘어

투자자들에 의한 주택 구입이 크게 줄었음에도 올해 현금 주택 구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현금 주택 구입의 주도세력이 투자자들이었다면 올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주택 장기보유로 에퀴티가 충분히 쌓인 데다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자녀들이 출가한 뒤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소규모 주택 구입 때 현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 투자자 감소, 올 현금구입 오히려 증가
올해도 현금 주택 구입 거래가 여전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현금 주택 구입은 투자용 주택 구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투자용 주택 구입이 줄고 실수요 주택 구입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금 거래가 더욱 증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집계 따르면 올해 1분기 비투자용 주택 구입 거래 중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이른바 ‘캐시 딜’ 은 약 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비율로 주택 3채 중 1채가 구입 때 모기지 대출을 끼지 않은 전액 현금 구입이었다.

■ 베이비부머, 현금거래 주역

올해 현금 주택 구입과 관련 나타난 특이한 현상은 현금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는 구입자 대부분이 이미 은퇴 연령층에 접어들 베이비부머 세대라는 것. 장기간 주택 보유로 모기지 대출 잔여금은 적은 반면 부동산 자산이 축적된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해 현금 주택 거래를 이끌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보유 주택을 처분한 뒤 발생한 현금자산으로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올해 현금 주택 구입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택 가격 급등으로 미국 주택 가치가 약 3조8,000억달러가 회복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주택을 장기 보유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가치 상승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입고 있다.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 (NAR)의 로렌스 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기간 부동산 자산을 축적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용 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며 “주가 상승 등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주택시장을 주도 중”이라고 분석했다. 2000년 약 4,660만명 수준이던 베이비부머 세대는 2012년 약 6,180만명으로 급증했다.

■ 모기지 대출 구입은 감소

현금으로 집을 사고 있는 비율은 이처럼 지속적인 증가 추세지만 모기지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은 현저히 감소중이다. 현금 구입을 주도했던 투자자들의 구입이 사라지면서 이 자리를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신하고 있지만 모

기지 대출을 통한 실수요 구입은 갈수록 살아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기지 대출액은 약 1,150억달러로 3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현금 거래액은 약 1,051억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무려 약 204억달러나 급증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금 거래 비율이 높은 투자자들의 주택 구입이 올해 1분기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이 자리를 베이비부머 세대가 빠르게 메우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금 구입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퓨 리서치에 따르면 은퇴 연령층인 65세를 넘는 인구가 하루에 약 1만명씩 증가하고 있고 2010년과 2020년 사이 65~74세 인구는 무려 약 50%나 급증할 전망이다.

■ 꾸준한 주택가치 상승 결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현금 주택 구입이 가능한 것은 지난해 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이후로 주택시장이 수차례 활황을 겪으며 가치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처음으로 집을 구입한 시기가 약 30년 전이라면 주택 중간가격은 1982년 당시 약 6만7,800달러에서 지난 4월 약 20만1,700달러로 3배 이상 뛰었다. 그동안 주택을 사고 파는 대신 꾸준히 모기지 대출을 갚아 나간 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동산 자산가치가 3배 이상

상승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의한 현금 주택 구입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과도 관계가 있다. 여생동안 모기지 대출상환에 허덕이는 대신 소규모 주택이라도 빛 없는 생활을 즐기기 위해 주택 구입에 보유 현금을 쾌척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다.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추세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활발한 주택 거래가 기대된다.

지난 3월 베이비부머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60% 이상이 현재 보유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백영주

Clara Paik
Principal Broker
Boston New Star Realty Branch Owner
New Star Realty & Investment
Realtor, ABR., GRI.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617-969-4989, 781-259-4989
Fax 617-969-4959, 781-259-4959
Cell 617-921-6979, 978-239-0141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Website: ClaraPaik.com & newstarrealty.com



한담객설閑談客說: 내 고장 칠월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가마솥, 한증막, 불벌, 살인더위 등등. 귀에 익지 않는가. 신문마다 한 여름이면 쓰던 과장스런 단어들이다. 호들갑이라 해야 할진대, 올해는 한국에서도 아직은 이런 말을 쓰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다. 한 두어주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보스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싶다.

칠월에 대서大暑즈음이다. 말그대로 한국에선 가장 무더운 시절이다. 보스톤에선 소나기를 동반했던 광풍이 자주 휩쓸고 지나갔다. 폭풍은 세월호 참사에, 월드컵에, 인사청문회 참담함에 두세차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많은 일이 파죽지세에 직렬로 연속해서 힘있게 밀고 쳐들어왔던 거다. 칠월에 더위에는 견딜 수 없었던가. 이제 북동쪽으로 고개를 돌려 올라가더니 자연소멸된듯 하다.

남동쪽에서 해마다 습격하는 스팀이던가. 다음은 얼마나 강력한 비바람이 허술한 경계망을 엿보는지 그건 무섭다. 올해에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올해에 먹어야 할 것을 이미 먹을만큼 다 먹었다는 소리다. 견딜 만큼 견뎠다.

한차례 소나기가 지나간 뒤라 해야겠다. 한껏 무겁고 습기찬 공기에 짓눌렸는데, 세찬 비가 찜통을 짊어지고 달아났다. 임계점에 이르면, 팽만한 물공기가 소나기되어 내렸다는 말이다. 시원하고 맑은 한여름의 공기에 숨쉴만 하다. 덕택에 텅빈 진공인데, 서늘한 진공이다. 대신 오후의 햇볕이 따가워져, 달라붙고, 눌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바람한 점 없으니 햇볕도 날리지 않아 그대로 쫓히고 있다. 날카롭기가 면도날과 같다. 벼가 무

럭무럭 익어가는 햇별인데다. 고마운 일이다. 이육사는 맑디 맑고 시원한 7월을 노래했는데, 보스톤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세월이 흠뻑 흘렀고, 고향과 사뭇 거리가 멀어 그런가? 그래도 청포도알은 청량해 보인다. 이육사 선생 청포도다. 하이야 모시와 극명한 조화가 청포도와 함께 한다.

내 고장 칠월은/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뻑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육사, 청포도)

칠월은 참 융감하기도 하다. 적막이라 해야 할겐가. 아 바쁘고 소란스런 세상에 이만큼

고요한 시간도 없지 싶다. 한여름 땀별이 내리쬐니 그런가. 개미새끼 한마리 어른거리지 않는바. 개미야 이 시간에도 일할 테지만, 과장법 심한 인간들은 개미가 더운 날을 피해 낮잠자고 있다고 말했다. 개미가 억울할 법도 하다. 너무 짙어 눈시린 나무그늘이 예각銳角을 던지는 한 여름 우리집 앞마당이다. 햇빛이 강렬한 만큼 그 그늘도 날카롭다는 말이다. 개미도 눈이 너무 부서 제집으로 달아나 숨을까 싶다.

한창 바캉스 가는 시절이다. 한국엔 방학이 시작 될테고 모두 찜통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달려가는 거다. 집안에 남아 있는 이들이야 '뭘 재미있는 일 없나?' 심심해 할 시간이고, 한가한 시간인지도 모른다. 찬물에 밥 말아 오이지와 풋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점심으로 먹으면 기막힐 시절이다. 갑작스레 졸음이 온다. 배부르고, 마루바닥이 서늘해 그런가 보다.

제목대로 객적이고 한가로운 소리를 읊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요한 15:5)

신영의 세상 스케치

457회

Stuart Scott의 삶의 노래

"Don't give up!"
"Don't ever give up!"

엊그제(07/16/2014)는 Jimmy V Perseverance Award가 LA에서 있었다. Stuart Scott은 SportsNight의 호스트로 1993년에 네트워크의 발사에 ESPN2 채널에 합류했으며 미국 최고의 ESPN 스포츠 센터에서 스포츠캐스터를 거쳐 앵커로 일하며 스포츠인들에게 주는 이번 ESPYS Jimmy V Award 상을 받게 된 것이다. 스카트는 2007년 암에 걸려 투병 중이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일에 열심을 다해 성실히 살고 있다. 49살의 스카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운 두 딸이 곁에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와 까닭이 충분한 것이다.

그는 7년 동안 암(appendix)과 투병하면서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으며 암환자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카트는 시간을 내어 링 위에서 복서가 되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임하며 축구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축구 코트에서 땀을 흘리며 혼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이다. 스카트는 말한다. 암과 싸우면서도 자신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자

신은 죽지 않는다고 말이다. 이렇듯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병을 만나기도 하고 그 병과 싸우다 지치기도 한다.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는 삶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지 않은가.

21년 동안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Jimmy V Foundation Cancer가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매일 그들을 통해 희망을 얻는 것처럼 그도 병마에 시달리는 많은 이들과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꿈과 희망을 나누며 실천하는 것이리라. 누구에게나 병은 찾아오지만, 그 병마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일어서서 걸어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슈트어트 스카트의 말처럼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만이 그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희망이며 제일의 파워인 것이다.

"How you live?"
"Why you live?"

우리는 이 물음을 병마와 매일 싸우며 이겨내고 있는 Stuart Scott이 묻지 않더라도 나 자신에게 매일 물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으며 대면할 수

있기를 오늘도 바람으로 놓는다. 그렇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또 여기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물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인생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저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고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을 제대로 잘 살아야 할 이유와 까닭이 있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이유이고 까닭이다.

스카트의 스피치를 들으며 몽클해지고 짙한 마음에 한참을 있었다. 두 딸아이를 너무도 사랑하는 한 아빠와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하는 한 남편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어질까 싶은 마음에서일 게다. 그리고 자신이 어려서부터 스포츠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미국 내 최고의 방송인 ESPN의 스포츠 앵커로서 그 무게감이란 참으로 클 게다. 그래서 더욱이 병마와 마주하며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꿈을 안고 매일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사는 것일 게다. 그의 삶은 병마와 싸우는 많은 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희망인 것이다.

이 세상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바라는 것이 또 있을까. 자신과 제일 가까운 가족(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식)이 병마와 싸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그 아픈 가족을 곁에서 매일 바라다보는 일은 참으로 안타깝고 견디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절망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아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참 기쁨이고 행복이기도 하다. 삶은 이처럼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 창조주의 손길을 찾아 무릎을 꿇으며 작은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 않던가.

"I can't never ever give up!"

정말 그가 지금까지 포기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쁘고 사랑스러운 두 딸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더욱이 그럴 것이다. 설령, 그가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할 때가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그의 두 딸과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들 가슴 속에 남아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그의 스피치를 통해 치유를 얻고 몸과 마음이 더욱 강건해져 일어서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어떤 수많은 스피치보다도 가슴속을 파고든 Jimmy V Perseverance Award에서의 Stuart Scott의 스피치는 내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공명으로 흐를 것이다.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으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제 4 탄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에디끄 에스테틱 특별할인

Professional Skin
Care System



행사기간 2014년 7월 부터~
상담 및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792-6876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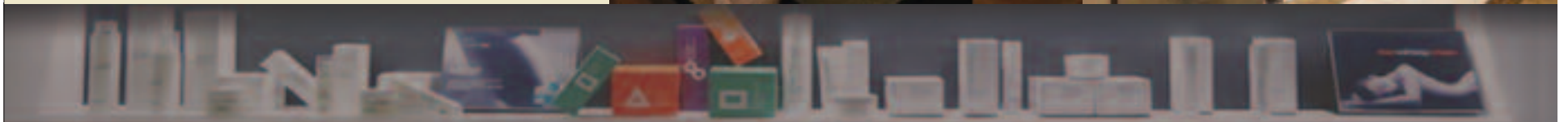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다.
에디끄 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추보세요

에디끄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럭셔리 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소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아론 버 (Aaron Bur)는 왜? (2)

(지난 주에 이어) 1782년 이후 뉴욕 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아론 버는,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초대 정부가 출범한 1789년 뉴욕 검찰 총장에 임명되었다. 그 해, 훗날 아론 버와 결투를 벌이게 되는 알렉산더 해밀튼은 조지 워싱턴 내각의 초대 재무장관이 되었고

아론 버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인 1772년 뉴욕으로 이주한 알렉산더 해밀튼은 킹스 칼리지 (현재의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해밀튼의 영재성을 알아보고 처음 후원자가 휴낙스 (Hugh Knox) 목사등은 해밀튼을 장로교 정신에 입학하여 설립된 프린스턴 입학시키고 싶어했으나, 당시 프린스턴 총장인 존 위더스푼 (John Witherspoon)이 해밀튼의 입학을 거절하면서, 해밀튼은 본의 아니게 영국 국교회 (Anglican Church)의 종교적 뿌리가 있는 킹스 칼리지에 이틀테면 특례 입학 (special student) 위치로 다니게 되었고, 정식 입학 허가는 독립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세월도 허수상했던 1774년 가을 학기에야 이루어졌다. 게다가 '서인도 제도 출신'의 특례 학생 해밀튼은 킹스칼리지 캠퍼스 내에서 어딘지 이질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어쨌거나 뉴욕으로의 이주, 킹스 칼리지에서의 학업 그리고, 미국의 독립 전쟁은 해밀튼에게 여러 모로 '인생 역전'의 교두보가 되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해밀튼이 킹스 칼리지에서 수

학한 기간이 길진 않지만, 독립 전쟁 발발 전후라는 특수한 요인이 해밀튼을 빛나게 했다는 이야기다. 해밀튼은 독립 혁명을 지지하는 편에 섰는데, 당시 킹스 칼리지 내에서 혁명 지지 세력은 존 제이 (John Jay) 로버트 리빙스턴 (Robert Livingston)등 극소수에 불과했다. 해밀튼의 유려한 글솜씨로 작성된 영국 왕실 충성과 (Loyalists)들의 입장에 맞선 정치 팸플릿은 그의 특출난 지적 재능과 분석, 논리, 문장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한편 독립 전쟁을 치르면서 미국과 프랑스 간의 긴밀한 공조가 관건이 되었는데, 덕분에 불어에 능통했던 해밀튼은 조지 워싱턴의 부관으로 일하면서 그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 건국의 아버지들 중 '프랑스통'을 꼽으라면 토마스 제퍼슨이나 벤자민 프랭클린이 언급되지만, 불어의 숨은 실력자는 프랑스 위그노 출신 어머니를 둔 해밀튼이었다. 그의 명석한 판단력과 지적 능력은 사실 조지 워싱턴의 참모에게 요구되는 것 이상이었다. 어느 샌가 '서인도 제도 출신의 법적으로 사생아'였던 해밀튼은 신생 미국의 핵심 인물로 부각하고 있었다. 급기야 매우 부유했던 상인이자 뉴욕 최고의 명문가문의 필립 스카일러 (Philip Schuyler)가 해밀튼을 탐냈다. 1780년, 해밀튼은 필립 스카일러의 딸 엘리자베스와 부부의 연을 맺게된다. 해밀튼은 그렇게 상

류사회로 진입했다.

미국 독립 전쟁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의회로 진출한 해밀튼은, 이후 건국의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지지하며, 제헌의회 (Constitutional Convention)를 소집한 핵심인물이자 연방주의자 (Federalists)의 이데올로기로 활약했다. 헌법 비준과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반연방주의자 (Anti-Federalists)들을 설득하기 위해 존 제이, 제임스 매디슨과 함께 Publius 라는 필명으로 저술한 Federalist Paper 85편 중 절반 이상은 해밀튼의 작품이었다.

그런데 해밀튼의 '연방주의'에 대한 확신과 선전이 단지 각 주의 '연맹'을 통한 단일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다. 초대 재무장관으로서, 미국의 재정정책의 근간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해밀튼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연방은행, 위스키에 대한 과세, 국가 채무 지불 계획 등은 사실 크레딧 제로 상태였던 신생 미국의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중앙 정부 재정을 확충하는데에 주력했다. 그런데 해밀튼이 주장했던 강력한 연방국가를 위한 재정 정책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집단은 주로 해밀튼의 장인 스카일러와 같은 북부의 상인 등 부유층이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제퍼슨과 그의 추종자들은 해밀튼과 대립각을 세웠고, 결국 1790년대 연방당과 민주공화당이라는 서로 다른

지역/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정당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론 버는 왜?"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본론으로 돌아가보자. 아론 버와 해밀튼은 어쩌다가 '결투'로 끝이 날 만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을까? 그것도 당대 가장 머리좋다고 평났던 두 사람이! 혹은 왜 1800년 선거 당시 해밀튼은 지금껏 초지일관 자신의 최대 라이벌이자 정 반대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서로 상반되는 지역-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졌던 제퍼슨이 당선되는 데에 일등 공신이 되고, 이를 통해 결국 버의 미움을 사게 될까?

아론 버의 소속 정당은 해밀튼의 연방당이 아니라 민주공화당쪽이었다. 물론 이들은 정치적 '이념' 때문에 맞섰다고보다는 공동의 지역구 뉴욕에서의 '이해'가 충돌했기 때문에 갈등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 가령, 해밀튼의 장인 스카일러는 워싱턴 집권 17기에 뉴욕주 초대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는 등 승승장구했는데, 1791년 상원 선거에서는 아론 버에게 패배하는 수모를 겪었다. 장인의 패배 덕에 막강 권력을 가진 것 같던 해밀튼도 적지 않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음은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이어 아론 버가 이끌었던 뉴욕의 "태머니"는 해밀튼에게 경제적으로도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43 무예도보통지와 정조대왕(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이산, 정조의 이름이다. 그는 영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와 해빈 흥씨 사이에서 1752년에 태어났다. 8세 때인 1759년에 세손에 책봉되었고, 1762년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자 어려서 죽은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되어 제왕수업을 하였다. 생부 사도세자가 정신질환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당쟁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처럼 정조 역시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항상 죽음의 그림자를 보면서 세손 시절을 보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개인 도서실인 '개유와'에서 공부만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때때로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흥국영59)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신책을 강구하였다. 1775년 영조가 그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하게 하였고, 이듬해 영조가 83세로 죽자 1776년 25세의 나이로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노론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왕위에 오른 정조는 규장각 설치 함께 실학자들을 앞세워 문예부흥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역사상 가장 많은 서적을 저술하고 편찬한 시기가 정조대이다. 수만권의 책을 보유하고 학자들을 모아 정책을 연구하였고 규장각에서 과거의 대과를 직접 관장하였다.

그리고 정조는 자신의 즉위를 방해했던 정후겸, 흥인한, 흥상간, 윤양로 등을 제거하고, 1780년에는 세도가 하늘 높은 줄 모르던 흥국영마저 축출한 후 견고한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또한 그의 업적으로는 화성 건설이다. 생부 사도세자를 죽이고 자신의 즉위를 반대했던 노론세력을 약화시키려고 수도를 화성(수원)으로 천도하려고 쌓았던 성이다. 이 축성에는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천주교가 활성화되었다. 조선에는 17세기부터 천주교가 들어왔다. 그리고 남인들을 중심으로 쇠락한 양반들의 신자가 늘어났다. 대표적으로 권철신, 이벽, 정약용 형제 등이다. 이승훈은 1783년(정조7년)에 북경에서 처음으로 영세를 받았고, 이듬해는 역관 김범우의 집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회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1791년에는 윤지충, 권상연 등은 조상의 신주를 불태우면서 서학과 성리학의 대충들의 파장은 당시의 사대부들이 감당하기 힘든 대혼란의 사건이었다. 곧 중국인 신부 주문모가 들어와 포교 활동을 하였으며 정조대에는 천주교를 금지하긴 하였지만 심하게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조가 즉위한 때인 1800년경에는 신자 수가 1만 여명으로 늘어났다. 그 외에도 왕의 전속 친위대인 장용영을 육성하였으며, 서얼의 등용과

노비제도 혁파(60)와 지방 수령의 권한 강화를 하면서 동시에 암행어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59) 흥국영은 정조가 세손 시절 부터 죽음을 무릅쓰고 호위하였다. 정조 역시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따라다니다 보니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정조는 세손 시절 여러차례 결정적인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 일화한 토막, 어느날 세손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영조에게 세손이 '시전'의 '요아편'을 읽는다고 무고하였다. 정조는 세손 시절에 영조의 명으로 그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셨으니 그 깊은 은혜 갚고자 할진대 하늘이 끝이 없음과 같다."라는 내용이 바로 요아편이다. 그래서 영조가 세손을 불러 오늘은 어떤 글을 읽었는지 하문하였다. 사실대로 시전을 읽었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영조가 읽지 말라고 했는데 읽었다며 내시에게 책을 가져오게 하였다. 동시에 세손은 안절부절하였다. 그리고 내시가 가져온 책을 살펴 본 영조가 '요아편'을 도려낸 이유라도 있느냐고 물으니 세손은 영결 전에 전하게서 읽지 말라고 해서 칼로 도려냈다고 둘러댔다. 그러자 영조가 앞으로 읽지 말라고 하면서 책을 돌려주었다. 등골에 진땀 흘려 흥국영 세손이 동궁으로 돌아 오니 흥국영

이 기다리고 있었다. 흥국영 "저하, 요아편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손은 "그대의 재치로 내가 살았소. 앞으로 그대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내가 반드시 용서하리라."라고 말하면서 흥국영의 손을 잡고 몇번이나 고마움을 전했다. 후일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흥국영은 출세가도를 달리며 도승지가 되었고, 왕 다음가는 세도를 누리면서 조선 왕조사에 처음으로 '세도'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그는 왕정조의 지원과 묵인하에 정조의 정적들을 모조리 제거하는데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축출된 사람들이 왕대비 정순왕후의 동생인 김귀주를 흑산도로 유배시켰으며 정후겸과 흥인한 등 정조의 즉위를 반대한 세력들, 특히 노론벽파들이 조정에서 밀려났다. 그리고 흥국영은 자신의 동생을 정조의 후궁으로 드리면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격이 되었다. 그가 바로 원빈 흥씨이며 그 원빈이 1779년(정조3년) 5월에 갑자기 죽었다. 그러자 흥국영은 자신의 동생이 독살되었다며 중궁전의 나인들을 너무나 가혹하게 다스려 많은 비난의 여론이 일었다. 그래서 정조 역시 그의 기세와 세도가 너무 지나치고 또 왕권의 친정이 안정권에 들었기에 흥국영을 조정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32살이었으며 무한한 세도를 누리다가 허무하게 쫓겨났다.

60) 노비추쇄도감, 즉 도망친 노비를 뒤쫓는 기관을 없앴으며 노비목록을 적어 놓은 '선두안'을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노비제도를 없애려는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였지만 양반들의 반발로 노비제와 신분제를 폐지하지 못하고 갑오개혁(1894년) 때의 신분제 폐지의 초석만이 되었다.

휴람으로 떠나는 고국방문

一石二鳥

마음 속 고이 간직해 온 고국 방문의 꿈, 최상급 의료서비스도, 특별한 관광 프로그램도 휴람을 통해서라면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HURAM 여행처럼 떠나는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이란?

'HOSPITAL, HEALING+HURAM(유람-돌아다니며 구경하다)'의 합성어로 한국의 의료와 관광을 연결해주는 의료관광 전문 회사입니다.



*** 한 차원 높은 의료관광 서비스 휴람**
 해외동포들이 한국 방문 시 각종 의료행위에 대해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병원들을 선별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비용, 질 높은 의료 기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드립니다.



- 1** 처음부터 끝까지,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상담원 전화 - 병원선별 - 예약 & 수속 - 치료 - 종료
- 2** 휴람만의 고객 특별 혜택!
 고품격 의료 네트워크 서비스 '휴람'은 의료도 관광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휴람을 통해 의료를 시행하시면 지불한 비용의 일부분을 마일리지로 환원해 드립니다.

HURAM

휴람이 추천하는 명품병원에서 **경험해 보세요!** 마법같이 예뻐지고, 당당하게 젊어집니다.

성형외과



- 눈밑지방제거
- 쌍꺼풀
- 코성형
- 가슴성형
- 페이스리프팅
- 안면윤곽수술
- 지방흡입술
- 기타 성형...



휴람의 네트워크병원은 서울 강남과 압구정에 있습니다. 이메일 문의: medical@huramkorea.com

문의: 617-583-2339

한국문의: 82.70.4141.4040



Fried Chicken 오리지날 치킨

Choice of :
 Crispy, Mild Sweet Glaze or
 Spicy Sweet Glaze
 크리스피, 순한 양념, 매운 양념
 Combination of half and half is available
 with whole chicken only

Chicken Bites 순살 치킨

Choice of :
 Crispy, Mild Sweet Glaze or
 Spicy Sweet Glaze
 크리스피, 순한 양념, 매운 양념
 Combination of half and half is available
 with large size only

Chicken Tender 치킨텐더

Slow marinated and hand battered
 crispy style chicken tender

Crispy Chicken Bites 닭강정

Stir fried crispy chicken bites
 with sweet and savory sauce



7days 11:00 AM - 11:00 PM
delivery / take out

전화 : 617-337-3500

주소 : 13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명원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부증여’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국영주권자인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모로부터 한국에 있는 상가를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와 관련된 은행차입금이 있어 이를 안고 증여를 받으려고(부담부증여) 하는데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done)가 증여자(doner)로부터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을 지는 형태의 증여를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라 합니다. 즉, 위 김한국씨가 부(父)로부터 상가를 증여받는 동시에 부(父)가 갚아야 할 은행차입금을 떠안은 형태의 증여계약을 말합니다.

일부는 매매, 일부는 증여로 봄

이런 부담부증여에 대해 한국세법과 미국세법에서 공히 일부는 ‘양도(매매)’ 거래, 일부는 ‘증여’ 거래로 해석합니다. 즉,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부채액은 증여재산의 대가로 보아 이 부분은 ‘양도(매매)’ 거래로 구분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넘긴 부분 즉, 시가와 채무승계액과의 차이는 ‘증여’ 거래로 봅니다.

이를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합니다.

김한국씨는 한국의 부(父)로부터 한국에 있는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 증여당시 시가: 9억원
- 담보된 은행차입금: 4억원
- 당초 부(父)의 취득가액: 2억원

위의 거래를 분석해 보면, 첫째; 김한국씨가 부(父)의 은행차입금 4억원을 승계받은 거래와 둘

째; 부(父)가 김한국씨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상가를 넘긴 거래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첫째; 김한국씨가 인수한 은행차입금 4억원에 대해서는 상가를 인수한 ‘대가’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매매)거래로 보며, 둘째; 시가 9억원인 상가를 4억원에 양도했으므로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 5억원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증여’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세법의 규정이 달라

그런데 한국세법과 미국세법 둘 다 부담부증여를 ‘양도(매매)’ 거래와 ‘증여’ 거래의 혼합으로 보지만,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이나 수증자의 취득가액(basis)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나라 세법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동시에 관련되어 발생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두 나라 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한국세법상의 부담부증여

먼저 부담부증여에 대한 한국의 세법 규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양도차익의 계산

첫째,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 사례의 경우 증여자인 부(父)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익)에 대해 과세되는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위부(父)의 양도차익을 계산해 보면, 양도가액(채무인수액)은 4억원이며, 그 4억원에 대한 취득가액은 0.89억원(당초취득가액 2억원 중 9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父)의 양도차익은 3.11억원(4억원 - 0.89억원)입니다(이는 상가 전체 양도차익 7억원(시가9억 - 취득가액2억)의 9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함).

부(父)가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양도차익 3.11억원에서 각종공제를 한 후 계산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및 수증자 자산의 취득가액

둘째, 한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대상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김한국씨 사례에서 수증자인 김한국씨에게 과세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상가의 시가9억원에서 김한국씨가 인수한 은행차입금 4억 원을 뺀 5억원입니다. 즉, 김한국씨는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부담부증여를 통해 김한국씨가 취득한 상가의 취득가액은 시가인 9억원(즉, 대가를 지불한 4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 5억원)입니다. 즉, 김한국씨가 향후 상가를 양도할 때 9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간의 부담부증여

한편 한국의 세법에서는 가족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금융기관의 채무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 되어 부담부증여로 인정합니다.

또한 한국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시 부채로 신고된 금액에 대한 명세서와 채무만기일 등을 관리해 향후 부채가 상환되는 경우 이를 증여자(부모)가 대신 갚아줬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면 수증자가 인수한 부채를 상환할 때 반드시 수증자의 자금으로 갚아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서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40)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

투자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투자하며 손실이라는 뼈아픈 경험 혹은 장기투자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정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소위 투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겠다는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투자의 첫걸음인 모든 투자 경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소중한 나의 돈을 남에게 맡깁니다.

일반 투자자는 재정상담가가 부과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정상담가는 일반적으로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정상담가에게 투자비용을 물어 볼 때 ‘얼마를 부과하는가?’ 는 제대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질문은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Total Costs) 투자 비용이 얼마인가?’ 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재정상담가가 자산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운영비(management fee)

가 전부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상담가가 선택하는 투자종목마다 비용이 따로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비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첫째는 재정상담가가 선택하는 금융상품에는 수수료(commission)가 있습니다. 어뉴어티의 수수료는 4%~10%, 로드(Load) 뮤추얼 펀드는 8.5%, 부동산 투자(Non-Trade REITs)는 10%, 그리고 생명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은 120%까지도 부과됩니다. 어뉴어티를 과는 일부 재정상담가나 보험판매인은 ‘자기는 손님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재정상담가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손님이 어뉴어티를 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재정상담가가 손님한테 말하지 않아도 되고 재정문서에도 항목별로 따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위에서 언급한 수수료 외

에도 매년 부과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영어로 annual expenses라고 합니다. 부동산(Non-Trade REITs) 투자는 2%, 어뉴어티는 3.6%~4.5%, 로우드가 없는 뮤추얼 펀드는 0.05%~6.74%이며 평균 1.3%가 매년 부과됩니다.

셋째는 뮤추얼 펀드 매니저가 개별적인 주식을 사고팔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펀드 SAI(Statement of Additional Information)를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자주 사고팔다면(turnover rate) 이러한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투자비용에서 손님에게 가장 부담되는 세(3) 가지 비용을 전부 계산해야 합니다. 첫째는 재정상담가의 운영비, 둘째는 금융상품의 수수료, 셋째는 투자 종목에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투자 비용은 수익과 상관없

이 부과됩니다.



작년처럼 30% 수익이 발생할 때는 일반 투자자는 경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작년의 수익률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주식시장 역사를 매년 비교할 때 주식시장이 올라간 비율은 60%이며 내려간 비율은 40%이므로 내려갔을 때 부과되는 비용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백만 불을 주식시장에 투자합니다.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1.0%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20년 후에는 약 \$560만 불이 되고 2.0%가 부과되는 곳에 투자하면 20년 후에 \$460만 불

이 됩니다. 단지 1% 수수료의 차이가 무려 \$943,454가 됩니다. 1.0% 수수료 차이가 투자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20년 후 거의 백만 불(\$1,000,000) 차이가 발생합니다.

* 각 뮤추얼 펀드 회사는 'S&P 500 인덱스 펀드'를 운영하지만 부과하는 경비는 다릅니다. 한 예로 Rydex Series Trust S&P 500 Fund (RYSYX)의 경비는 무려 2.32%이고 Vanguard S&P 500 ETF (VOO)의 경비는 단지 0.05%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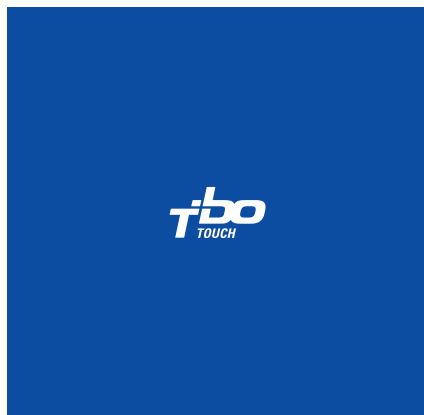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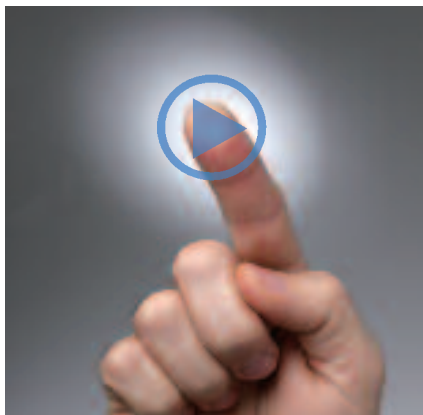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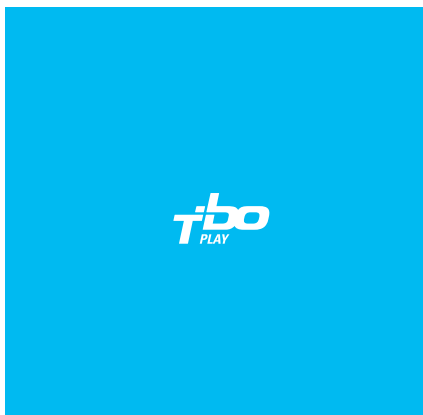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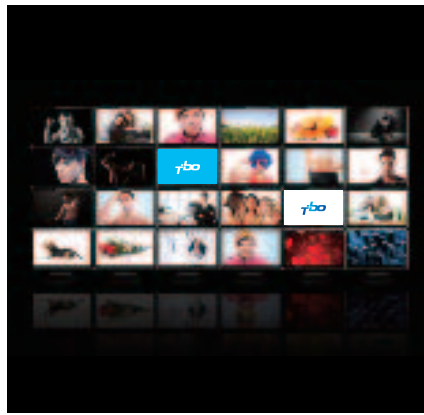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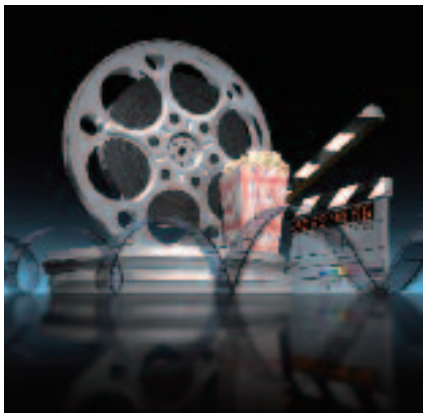
경비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금융상품을 일절 취급하지 않는 재정상담가를 고용하시기 바랍니다. 경비를 모르면서 하는 투자가 잘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서쪽에서 해가 솟아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경비(expense)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인 소중한 돈입니다.



The Best
Ondemand



The Best
Ondemand



Welcome, TBO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FESTIVAL!

티보 플레이(Tbo Play) 런칭 이벤트

이벤트 시행 기간 : 7월 14일 ~ 8월 31일(개통일 기준)

이벤트 내용 : \$39.99 상품 개통으로부터 3개월간
월 \$9.99으로 가격인하 (3개월 후 \$39.99로 과금)



공중파, 케이블, 최신 영화, 유적비디오 까지 대한민국 모든 방송 콘텐츠를 모두 즐기는 The Best On-Demand, TBO
집에서 TV처럼 편하게 IPTV TBO Play,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TBO 내 손 안의 미디어, TBO Touch (출시예정)까지 다양하게 즐기세요.

The Best Ondemand, TBO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6-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유학생의 미국 의대 진학 (1)

누구나 알아주는 명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봉사 정신, 높은 연봉까지...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많다. 한국에서의 상황도 비슷하지만 미국에선 특히 의사가 연봉이 가장 높은 직종 중 하나이고(연평균 소득 22만 달러 이상),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직업 2위로도 의사가 꼽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미국에서 의대에 진학하거나, 의사 면허를 딸 확률은 어떻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정식 면허를 가지고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방법은 미국의 의학 대학원을 졸업해서, 미국 의료면허 시험(USMLE)을 통과한 후에, J1(교환 방문) 비자를 받아 수련의(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다음, 일단 한국으로 귀국해 2년 간 체류한 후, 다시 H1(취업) 비자를 신청, 취득해 미국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된다. 만약 미

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지 않고 한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면 국가 자격증인 미국 의사 면허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료면허 시험 통과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미국 의학 대학원에 다시 입학하거나, 한국에서 의사 면허증을 딴 후에 미국 의료 면허를 다시 따라야 한다.

위의 과정은 사실 유학생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유학생으로서 가장 어려운 관문은 의사가 되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의 첫 발걸음부터다. 의사가 되기 위한 의학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이 당연한 일이 시민권이 없는 유학생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미국 의학대학 협회(AAMC: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에서 작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의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의대생은 총 83,424명이었다. 그 중 스스로 Asian origin이라고 밝힌 학생은 18,530명으로 약 22% 비율이다. 하지만 origin은 말 그대로 동양계 미국인이라는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 신분은 1,559명으로 전체 의대생 중 2%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1,559명 중 약 70% 이상이 미국과 유사한 의학 교육 과정이 있는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에,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순수한 한국 유학

생 출신의 미국 의대생이 얼마나 적은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유학생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현재 미국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은 약 82만 명 정도로 지난 10년간 약 40% 가까이 증가했다. 이 숫자는 매년 3~8% 정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2020년까지 백만 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 의학 대학원들이 유학생들에게 입학 허가를 내주는 비율은 이 수치와 전혀 상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에 미국 의대에 지원한 유학생 1,419명 중 합격 허가를 받은 학생은 199명이었다. 이는 약 14%의 합격률로, 미국의 상위권 대학이나 대학원의 평균 합격률과 비교해 봤을 때는 꽤 높은 수치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작년에 의대에 지원한 미국인 중 약 42%가 합격하여 의대생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유학생이 미국 의대에 진학하기가 3배 어렵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학생의 의대 진학이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 미국의 141개 의학 대학원 중 반 이상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원서조차 받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주립 대학교 산하의 의학 대학원은 주 정부에서 교육 예산을 받기 때문에 굳이 유학생

에게 높은 수준의 의학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즉, 대부분의 주립 대학교 의학 대학원은 유학생을 받을 이유도, 여유도 없는 것이다. 사립 대학교라도 하더라도 사실 사정은 비슷하다. 미국 국민이 아닌 이상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장학금 혹은 보조금 지원, 심지어 학자금 대출조차 기회가 없고, 결국 유학생에게 들어가는 교육 비용은 대학 측에서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립 의대가 유학생 스스로 학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증명, 즉, 4년치 의대 수업료-약 2억 5천 만원 상당-를 예탁 계좌의 형식으로 등록 시 요구한다.

결국, 한국 유학생이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미국 의학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힘들다'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이다.

(다음 칼럼에 계속)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 2014.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6-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재정보조(Financial Aid)신청이 보딩스쿨과 대학 진학시 불리한 요인인가?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339-234-5255 / 5256 / 5257
Fax: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미국 경기가 생각 만큼 빨리 풀리지 않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교마다 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 사립 중,대학들은 일정한 기금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기금을 활용하여 신규 교사,교수채용과 시설확충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과연 재정보조 신청이 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인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보조의 종류는 융자(Loan), 장학금(Scholarship), 필요한 만큼의 무료 재정보조(Need-based Financial Aid: NFA), 일하면서 공부하는 형태(Work and Study)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지면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NFA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보딩 스쿨 지원시 재정보조)

일반적으로 사립 보딩학교 지원시 필립스 앤 도버와 엑시터를 제외하고 외국 학생들의 재정보조 신청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주권 이상 소지자들의 재정보조 신청은 모든 학교가 가능하다. 최근 몇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하여 많은 사립 학교들이 투자한 기금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투자실패로 인한 기금 손실과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많은 학교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매년 보딩학교의 등록금 증가폭이 예전에 비해 높고, 학교마다 기부금 예상 금액

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여 기금모금에 동참할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입학 형태 역시 예전과 달리 등록금을 납부할수 있는 가정과 기부금등의 여러 형태의 재정 협조가 가능한 지원자들에게 보다 많은 입학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물론 일정 부분 재정보조로 입학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실질적으로 명문 보딩 학교들의 경우는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은 우수한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학교 기금을 써가면서까지 학생들을 유치하기를 원치 않는다.

특히 최근 부유한 중국 학생들의 보딩 지원자수 증가는 재정보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소수 민족들(흑인, 라틴아메리카 인)의 경우는 재정보조 신청이 입학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대부분 학교들이 이들의 지원을 환영하고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입학에 포함시켜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코리아 어메리칸들이 명문 보딩학교 지원시 재정보조를 원할 때는 매우 드문 경우만 입학허가를 받기 때문에 만약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고 좋은 보딩학교에서 공부하길 원한다면 재정보조 신청을 추천하지 않는다.

(대학 지원시 재정보조)

대학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 외국 학생들의

재정보조 혜택에 차이가 있다. 주립 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과 타주 출신의 경우 재정보조(need-based)는 없고 단지 타주 출신 학생들의 경우는 융자와 학교에 따라 약간의 재정보조 수혜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다. 사립 대학의 경우는 학교의 재정 상태가 우수한 아이비리그, MIT, 스탠포드 및 몇개 대학들은 외국 학생들 역시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허가와 재정보조 평가는 별개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대학 공동원서에 재정보조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어 실제로 입학 담당자들이 재정보조 신청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재정보조 신청을 한다면 조기지원(ED 또는 EA)을 통한 입학허가가 정규지원보다 입학과 동시에 재정보조를 받을 확률이 높기때문에 재정보조가 필요한 외국인 학생들이 아이비리그 진학을 원한다면 가능한 한 조기 지원을 강력히 추천한다. 물론 학교를 본인의 능력에 비해 낮추어 지원 하거나 맞게 지원하는 것이 두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이 재정보조를 신청하여 대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입학에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재정보조금의 액수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금액을 원하는 지원자의 경우는 조기 지원보다는

정규 지원을 통해 많은 학교들의 재정 보조 액수를 비교하여 최종 학교를 결정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국에는 많은 우수한 대학들이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반듯이 최고의 대학들은 아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보다 훨씬 교육의 질, 리서치, 교수들의 능력이 뛰어난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비리그에 입학한 학생만이 성공한 학생이고 아이비리그에 속하지 않는 학교에 진학한 것은 실패한 학생이라는 도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학생의 특성에 잘 맞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학생 본인에게 최고의 대학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대학 지원시에 재정보조를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조기 지원을 해야 유리하고 영주권 이상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정규 지원시 재정보조 신청은 비신청 학생들보다 불리한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물론 월등히 우수한 학생의 경우는 큰영향을 받지 않는다.

명문 중,고등학교 보딩 지원시 재정보조는 입학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하지 말고,1년후 재정보조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때 고려해서 신청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물론 외국인 학생들이 재정보조와 더불어 통학이 아닌, 보딩을 지원하는것은 입학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알선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E2 비자 사업체,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린드롬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원하시는 사업체를 찾아드립니다.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다운타운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금액 협상가능

보스톤 남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80,000 매매가격 \$60,000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67,000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00,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3,000 매매가격 \$39,000

뉴햄프셔 드랍오프 스토어, 연매상 \$82,000 매매가격 \$30,000

세탁소 뉴턴지역, 연매상 \$17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 연매상 \$600,000+, Full 리커 면허증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메인주 컨비니언스, 연매상 \$600,000 E-2 비자 가능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떡아님)

보스톤 북쪽 큰 몰안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아침, 점심(6일) 매상 \$180,000 주변에 아파트 신축 중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로드아일랜드 큰 몰 안 모자+악세사리, 연매상 \$500,000+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20,000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뉴턴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명문 중.고 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이드업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미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2014 보스톤교육원 여름방학 SAT I Program

I. 내실있는 Program 구성

- 문제 유형별 수업 후 후반 실전 test 위주 수업
- 매일 단어 및 실전문제 test
- 3시간의 수업을 포함한 종일 프로그램(9:00~5:30)
- 엄격한 학생 및 학사관리 (home work, 매주 test 결과 보고서 발송)

III. 합리적인 수강료

- 정규반: \$950 / session (3주)
- 주말반: \$450 / 3주

II. 실력있는 강사진

- **Critical Reading**
영문학박사
다년간 SAT 강의 경력의 실력있는 강사
- **Writing**
15년 이상의 강의 경력
에세이 쓰기 및 교정 전문가
- **Mathmatics**
공학박사
오랜 경험으로 학생들 취약점 파악 후 지도

IV. 다양한 선택 가능성

- Session 별 각기 다른 수업 및 test 자료
- 실전문제 풀이 중심 주말 특별반
- New SAT (2016년 시행) 준비반

* 저학년을 위한 writing, reading class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services@bostonedu.org